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초등학교 교사의 외래어에 관한
인식 연구



초등영어교육전공

유미진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초등학교 교사의 외래어에 관한
인식 연구

지도교수 오준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8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초등영어교육전공

유미진

유미진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9년 8월 26일



주 심 교 육 학 박 사 조 윤 경 (인)

위 원 문 학 박 사 배 재 덕 (인)

위 원 영 어 교 육 학 박 사 오 준 일 (인)

<목 차>

목 차	i
표목차	iii
영문초록	v
I. 서 론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2 연구과제	4
1.2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6
2.1 학년 별 어휘 선정 및 제한	6
2.1.1 교육과정 별 어휘 통제	6
2.1.2 교육과정의 소재	11
2.1.3 교육과정의 어휘 선정	13
2.2 어휘 선정 기준	18
2.2.1 일반 어휘 선정 기준	18
2.2.2 외래어 선정 기준	26
2.3 교육과정의 외래어	30
2.3.1 언어 자료로서의 외래어	31
2.3.2 교육과정 외래어 목록의 변화	33
2.4 선행 연구	39

III. 연구 내용 및 방법.....	42
3.1 연구 참여자.....	42
3.2 연구 도구.....	45
3.3 자료 수집 절차	53
3.4 자료 분석.....	54
IV. 연구 결과 및 논의.....	56
4.1 가르쳐야 할 어휘 목록과 외래어의 구분 여부.....	56
4.2 개정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63
4.3 외래어 선정 기준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 정도	77
V. 결론 및 제언.....	81
5.1 결론	81
5.2 제언	82
참 고 문 헌.....	84
부 록.....	88

〈표 목 차〉

〈표 1〉 교육 과정별 어휘 통제	9
〈표 2〉 출처별 어휘 분석	15
〈표 3〉 5개 교과서의 어휘 분포	19
〈표 4〉 어휘의 사용 빈도와 범위의 차이	21
〈표 5〉 6차와 7차 교육과정별 동일, 추가, 삭제된 외래어	35
〈표 6〉 7차와 개정 교육과정별 동일, 추가, 삭제된 외래어	38
〈표 7〉 연구 참여자 분석(교육 경력 정도)	42
〈표 8〉 연구 참여자 분석(영어 전담 경력 정도)	43
〈표 9〉 연구 참여자 분석(영어 실력 관련)	44
〈표 10〉 연구 참여자 분석(교사 영어 연수 관련)	45
〈표 11〉 설문지 구성	46
〈표 12〉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된 외래어	47
〈표 13〉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외래어	48
〈표 14〉 설문지 부분 2에 제시된 외래어	49
〈표 15〉 설문지 부분 6에 제시된 외래어	51
〈표 16〉 설문지 각 부분별 신뢰도	52
〈표 17〉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된 외래어에 대한 판단	57
〈표 18〉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외래어에 대한 판단	58
〈표 19〉 전담여부와 포함 판단 부분 점수의 t-검정	60
〈표 20〉 전담여부와 미포함 판단 부분 점수의 t-검정	61
〈표 21〉 교육경력, 영어실력, 영어전담경력과 포함, 미포함 판단 부	

분 점수의 상관관계	62
<표 22>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된 외래어에 대해 학생들이 쉽고 느끼는 정도에 대한 인식	63
<표 23>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외래어에 대해 학생 들이 쉽고 느끼는 정도에 대한 인식	65
<표 24>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있는 외래어에 대한 발음의 유 사성 정도에 대한 인식	66
<표 25>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외래어에 대한 발음 의 유사성 정도에 대한 인식	67
<표 26>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있는 외래어에 대한 지도의 수 월성 정도에 대한 인식	68
<표 27>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외래어에 대한 지도 의 수월성 정도에 대한 인식	69
<표 28>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있는 외래어에 대한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유용도 정도에 대한 인식	71
<표 29>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외래어에 대한 학생 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유용도 정도에 대한 인식	71
<표 30> 포함시키면 좋을 외래어	74
<표 31> 교사 집단과 외래어 인식의 상관관계 분석	76
<표 32> 외래어 선정 기준	78
<표 33> 교사 집단 변인별 상관관계	79

A Study on Elementary School Teachers' Recognition of Loanwords

Mi Jin Yoo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Korean national English curriculum has developed the list of vocabulary and the number of the vocabulary which students have to learn. Loanwords are also included in that curriculum. Nowadays, many loanwords are absorbed into the Korean language because of technological developments of inherent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oriented society. In additi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re closer to loanwords before they study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Since many loanwords are presented in many school textbooks, the students tend to use these loanwords more familiar. Therefore loanwords in national English curriculum are vital in keeping students' English activities more lively and rich without increasing learning their learning burde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eacher's recognition of loanwords in the national English curriculum through analysis of loanwords throughout national English curriculum and survey. For this purpose, researched whether elementary school teachers can successfully divide vocabulary lists and loanwords. And analyzed teachers' recognition of the loanwords in national English curriculum and researched teachers' recognition of standards of loanwords selec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re have been considerable changes of loanwords in

national English curriculum, teachers didn't recognize that change, and they are short of recognition of supplementary or eliminated loanwords. In addition, teachers are short of understanding loanwords in the national English curriculum and training of teaching loanwords are also short.

Secondly, with careful consideration of learning burden of students, similarity, teachability and availability, teachers think that adequate and inadequate loanwords are blended in the amended national English curriculum's loanwords.

Finally, teachers more prefer availability and frequency as standards of loanwords selection.

It is sugges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show the condition of teachers' recognition of loanwords in national English curriculum. Also, this study can emphasize the importance of loanwords in curriculum and shortage of recognition of loanwords. Therefore, this study can provide loanwords data possible for developing loanwords in national English curriculum. In addition, there are some need to further research of teaching English through loanwords effectively.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 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관심사이다. 영어 교육에 있어 그 학습 자료라 할 수 있는 어휘가 갖는 중요성은 부인하기 힘들다. 특히, 초보 단계에 해당하는 초등 영어 교육에서 어휘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어휘는 영어의 네 기능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익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김영숙, 1997). “문법이 없으면 극히 적은 양의 정보만이 전달되지만 어휘가 없이는 아무 것도 전달 될 수 없다(Willkins, 1972, p. 111)”고 할 정도로 어휘의 습득이 중요하며, 그만큼 가르칠 재료로서의 어휘 선정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환경(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EFL)이며 현재 7차 교육 과정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교과목에 포함시켜 학습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사와 학생들은 어떤 어휘를 학습해야 하는 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휘 학습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김세림, 2004). 이러한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정에서는 어휘 목록표 및 어휘 수를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외래어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7차 교육 과정의 어휘의 양을 살펴보면 6차 교육 과정(주 2시간)과 비교해 볼 때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최소 어휘 수는 외래어 30낱말을 포함하여 370낱말로 축소되었고(교육 인적 자원부, 2007), 전체 450내외

의 낱말을 학습하도록 되어있다. 이렇듯 어휘 수를 줄인 이유는 주당 학습 시수상의 차이도 있겠으나 학생들의 어휘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이유도 크겠다. 이에 따른 7차 교육과정에서의 단위 시간당 이수해야 할 최소 어휘 수는 3,4학년은 2.35단어(연간 34시간), 5,6학년은 1.32단어(연간 68시간)이다. 그리고 개정 7차 교육과정(전체 520낱말 내외)에서는 3,4학년은 1.76단어(연간 68시간), 5,6학년은 1.37단어(연간 102시간)이다.

그러나 주당 수업 시수 등을 고려하더라도 초등학교 4년 동안 약 500낱말 정도의 어휘를 학습하는 것에 대해 어휘 수가 적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는 예전부터 있었다(김영숙, 1997). 어휘가 적으면 제한된 어휘를 사용하여 교과서를 제작해야 하므로 자연스러운 언어 입력을 제시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며, 학생들이 알고 있거나 학습할 단어가 적으면 활동이 제한될 염려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어휘의 양과 범위를 분별없이 늘리면 학습자들에게 외국어 어휘 학습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언어 입력, 보다 발전된 교과서의 활동 및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적다고 여겨지는 교육과정의 외래어 부분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습 활동 시 제시된 어휘 수가 적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학습 부담이 적은 외래어를 도입하여 보다 활발한 언어 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외래어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어휘로 간주되어 학습해야 할 어휘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며, 과학 기술의 발달과 국제화 사회의 특성 때문에 많은 영어 어휘가 우리나라 말에 외래어로 흡수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사회·문화적 변화로 초등학생들은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기 이전부터 일상생활에서 외래어를 접하게 되고,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교과서의 교과서에 외래어가 제시되어 있어 외래어를 친숙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윤희선, 2003). 그러나 어휘 목록에 제시된 외래어의 선정에 있어

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교육과정이 바뀔 때 마다 매번 변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은 어떤 외래어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어휘 학습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지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그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언어 자료를 듣고 이해하거나,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영어 초보자인 초등학교생들에게 외래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제한된 어휘 안에서 보다 융통성 있는 어휘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추가적인 어휘 학습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외래어 도입의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개정 7차 교육과정의 어휘 관련 지침에서는 “생활주변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아래의 낱말들은 외래어로서 새로운 어휘로 간주하지 않는다. 아래 낱말 외에 3~6학년에서는 40낱말 내외, 7~10학년에서는 40낱말 내외의 외래어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8, p. 11)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어떤 기준으로 외래어 목록을 정비하였는지에 관한 연구가 없으며 또 어떤 낱말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외래어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를 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적다는 전체로 교육과정에 제시된 외래어 중에서 학습 부담이 큰 외래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외래어 도입의 원래 취지와는 맞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외래어의 목록이 제시되지 않으면 어떤 낱말을 외래어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과학과 학술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어휘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초등학교 영어 교육에서 어휘의 수를 늘려야 한다면 초등학교생들이 이미 알고 있어서 친숙한 외래어를 중심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김미래, 2001). 그러나 영어과 교육과정에서의 외래어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초등학교 영어 교육을 위하여 선정한 외래어의 선정 기준의 타당성을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며(김세림, 2004),

기본 어휘 목록에 포함되는 어휘를 선정할 때의 선정 기준이 외래어의 선정에도 명확한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전병만, 2006).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 영어가 처음으로 도입된 6차 교육 과정에서부터 개정 7차 교육 과정의 외래어를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개정 7차 교육 과정의 외래어 목록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을 분석한 뒤 현재 외래어 목록의 적절성을 고찰해 봄으로써 외래어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교사들의 외래어 교수에 대한 인식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1.2 연구과제

구제적인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 (1) 초등학교 교사들이 가르쳐야 할 어휘 목록과 외래어를 구분하고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가?
- (2) 개정 교육과정의 외래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 (3) 외래어 선정 기준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 정도는 어떠한가?

1.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의 대부분이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부산 및

경남지역의 초등학교 영어전담 교사 및 학부 또는 대학원의 영어 교육과 출신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표집상의 문제(교육적 상황, 지역의 특수성 등)로 결과 해석이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외래어에는 그 개념 면에서 어원적으로 분석하였을 경우 차용된 말 등 더 많은 단어가 외래어로 판명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 등장하는 외래어는 교육과정상의 외래어 정의에 따라 그 범위가 한정된다.

셋째, 본 연구를 위해 작성한 설문지에 포함시킨 외래어의 숫자가 적으므로 그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학년 별 어휘 선정 및 제한

Brown(1994)은 언어학습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보조 자료의 형태는 교과서라고 지적하였다.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기본 어휘는 바로 이 교과서 속에 녹아있다고 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기본 어휘는 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거쳐 왔으며 특히 외래어 항목에서는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 따라서 초등학교 기본 어휘와 그 선정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2.1.1 교육과정 별 어휘 통제

어휘 통제란 초급 단계 학습자의 학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학습할 어휘의 범위나 수 등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Coady, 1997). 즉, 너무 많은 어휘를 식별하고 이해해야 하는 부담을 줄임으로써 언어학습이 용이해질 수 있다는 것을 어휘 통제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빈도수에 따라 학습 단계별로 집필된 읽기 교재(graded readers)가 어휘 통제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장경숙과 정규태, 2005). 1930년대 이전까지는 어휘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Carther & McCarthy, 1988). Ogden(1930, 1968)

은 기본적인 의사 소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850개의 어휘를 기본 어휘로 선정하여 EFL 학습자들에게 양질의 초급 교재를 보급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기본 어휘들은 쉽사리 습득되면서 복잡한 개념을 표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Ogden이 선정한 초보 어휘 목록 자체가 오늘날 널리 활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초적인 어휘를 선정하여 핵심적인 영어를 학습하게 하겠다는 취지는 어휘 통제의 기본 정신으로 계승되어 오고 있다. 그밖에도 Thorndike와 Lodge(1944)에 의해 개발된 어휘 목록도 어휘 통제의 전통을 계승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 후 발표된 어휘 목록들 가운데 주목받는 것이 약 4,500 어휘로 이루어진 Hindmarsh(1980)의 *Cambridge English lexicon*과 McArthur(1981)의 *Longman lexicon of contemporary English* 등이다. 그 후에도 지속적인 연구가 있었으며 1995의 *Longman lexicon of Contemporary English* 3판에는 사용 빈도가 높은 3,000개의 어휘를 선정한 뒤 이를 구어와 문어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이러한 기본 어휘 선정은, 어휘 학습에 관한 관심의 표현이기는 하나 다분히 가르칠 어휘를 통제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어휘 통제의 경향은 문법, 구문을 강조하는 구조주의 언어학에 편승하여 어휘 학습을 경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1970년까지는 문법, 구문을 익히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정도의 어휘를 기본 어휘 개념으로 간주하여 교육 현장에서 그 습득을 권장하는 형편이었다(김영숙, 1997; 신명신, 1996).

1970년대에 들어 의미, 기능 중심의 교수 요목이 거론되면서 어휘를 극도로 통제하고 어휘 학습을 경시하던 전통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어휘 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70년대 중반에는 어휘 학습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연구들이 제시되었다. Donley(1974)는 어휘의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어휘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Lord(1974)는 어휘와 의미의 관계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라는 견해를 전제로 어휘 학습이 의미의 가변성, 지시 대상의 모호성, 어휘와 관련한 개념의 확장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어휘에 관한 관심이 어휘 통제로부터 의미 습득, 어휘 습득으로 전이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로 70년대 말에는 어휘 연구가 보다 본격화되었다. 언어 교육에 있어 어휘 교육의 비중이 높아져 그 위상이 정립되었고, 어휘 의미론에 입각한 어휘 교육이 시도되기도 하였으며, 학습자 중심의 어휘 학습 전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어휘 통제의 전통은 희석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어휘 통제 및 기본 어휘에 관한 관심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EFL 상황에서는 어휘통제가 불가피하기도 하다(김영숙, 1997). 다음에 제시된 <표 1>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별 어휘 통제 및 그와 관련된 어휘 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우리나라 영어과 교육과정의 어휘의 변화를 알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다.

중등 영어교육이 시작되었던 시기부터 어휘 통제의 방향을 살펴보면 1차(1954-1963)와 2차(1963-1973)에서는 어휘 목록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학년별로 사용 어휘수를 권장하였다. 3차(1973-1981) 교육과정에서는 학년별 어휘수와 함께 필수 어휘표(766개)를 제시하고 중학교에서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여 어휘 통제를 보다 강화하였다. 이 때, 필수 어휘를 기본 어휘와 구별하여 사용함으로써 보다 강화된 어휘 통제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4차(1981-1987) 교육과정에서는 어휘 통제를 다소 완화하여 기본 어휘표(730개)를 제시하였으며, 1-3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였듯 학년별 어휘수를 권장하였다. 5차 교육과정(1987-1991)에서는 4차와 마찬가지로 기본 어휘표(753개)를 제시하여 중학교에서 이수하기를 권장하였으며 4차와 같이 학년별 어휘수를 제시하였다. 6차(1992-1999) 교육과정에서도 기본 어휘표(995

<표 1> 교육 과정별 어휘 통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개정 7차	
								2006년	2008년
								8월 25일 고시	12월 26일 고시
중학교 영어 어휘 통제	*학년별 사용 어휘 수 권장	*학년별 사용 어휘 수 제시	학년별 사용 어휘 수 권장	학년별 학습 어휘 수 제시					
		*필수어 휘표 (766개) 제시	기본 어휘표 (730개) 제시	기본 어휘표 (753개) 제시	기본 어휘표 (995개) 제시	기본 어휘표 (800개) 정도 사용 권장)	기본 어휘표 (840개) 이내 사용 권장)		
초등 영어 어휘 통제	교육과정 부재					학년별 어휘 수 제시 (500개 내외)	학년별 최저치, 최고치 의 어휘 수 제시 (450개 이내)	학년별 어휘 수 제시 (500개 이내)	학년별 어휘 수 제시 (520개 이내)

개)를 제시하여 이를 이수하기를 권장하며 학년별 학습 어휘수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필수 혹은 기본 어휘표가 제시된 것은 3차 교육과정부터이며 1차부터 6차 교육과정까지 모두 학년별로 일정한 수의 학습 어휘 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 과정의 어휘 통제의 방향은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장경숙과 정규태, 2005).

6차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영어 교과를 도입하게 된다. 1995년 교육부 고시에 따라 초등학교 영어 교육과정이 제정 공포되었고,

1997년부터 초등 영어가 정규 교과목으로 실시되었다. 이홍배 등(1995)에 의하면 6차 초등영어의 어휘는 중등 기본 어휘를 바탕으로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과서에서 빈출도가 높은 어휘를 조사 분석하여 빈도 순서를 분석하여 추출한 1,012개의 어휘 중에서 추상적이고 현실성이 없거나 학습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과 초등학교 영어과 어휘 선정 기준에 어긋나는 낱말을 제외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의 관심 소재(색깔, 동물, 학교 생활 등)와 관련된 어휘를 추가하여 기본 어휘를 선정하였다. 외래어와 관련하여서는 '초등학교 교과서나 이미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어휘 중에서 빈출도가 높고 발음에 커다란 차이가 나지 않는 126 낱말을 선정하여 외래어로 인정하고 전체 어휘 수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고 있다[(이홍배 외, 1995, pp. 142-145) 김영숙, 1997에서 재인용]. 이러한 과정을 거친 6차 교육과정 시안의 어휘 수는 700여개 였으나, 최종적으로는 3, 4학년에서 각각 100개, 5, 6학년에서 각각 150개, 전체적으로 500개 내외의 어휘를 이수하도록 권장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그 변경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김영숙, 1997).

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은 각각 80~120낱말, 5년과 6학년은 각각 90~130낱말을 이수하도록 하여 학년별로 최저치와 최고치를 제시하고 급간을 두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영어의 수준을 통제하기 위해 4개 학년 전체의 어휘 수는 450낱말을 넘지 않게 한다는 제한이 있다. 곧, 3학년에서 120낱말, 4학년에서 120낱말을 새로운 어휘로 사용한 교과서라면, 5학년과 6학년을 합쳐 210낱말 이상의 새로운 어휘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여 익숙해진 상용 외래어는 30개까지 새로운 어휘로 간주하지 않는다.

2.1.2 교육과정의 소재

어휘는 언어 재료 중의 하나로서 소재와 관련된 어휘를 선정한다. 소재가 명확하게 선정이 되어야 그 소재에 맞는 어휘를 선정할 수 있다.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IV(1996)에 따르면 6차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는 일상생활에서 소재를 선택하되, 3~4학년은 음성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 5~6학년은 문자언어에 도움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선정한다. 3~4학년은 개인생활에 관한 것, 교우 관계와 학교생활에 관한 것, 가정생활 및 의식주에 관한 것, 건강, 취미, 운동에 관련이 되는 것, 주변생활, 날씨, 자연 등에 관련이 되는 것,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심화 발전이 가능하다. 5~6학년은 3~4학년에 제시된 소재를 참고하여 외국인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사회 생활과 국가 생활에 관련이 되는 것을 바탕으로 심화시킬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는 일상 생활과 친숙한 일반적인 화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하되, 의사 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한다. 6차 교육과정에 비해 보다 다양하고 자세하게 소재를 안내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일상 생활과 친숙한 일반적인 화제는 다음과 같다.

1. 개인 생활에 관한 내용
2. 가정 생활과 의식주에 관한 내용
3. 학교 생활과 교우 관계에 관한 내용
4. 주변의 사회 생활과 대인 관계에 관한 내용
5. 생활, 습관, 건강, 운동 등에 관한 내용

6. 취미, 오락, 여행 등 여가 선용에 관한 내용
7. 동식물, 계절, 날씨 등 자연 현상에 관한 내용
8. 외국인의 생활 습관, 학교 생활 등 일상 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9. 우리 문화, 예절, 일상생활을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0. 공중 도덕, 질서 등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
11. 환경 보전, 봉사, 협동 정신 등 건전한 사고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2. 정치, 경제, 역사, 지리, 과학, 정보 통신, 우주, 해양, 탐험 등 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3. 예술, 문학 등과 같이 심미적 심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4. 근로, 근검 절약, 진로 문제 등 개인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 내용
15. 남녀 평등, 인권과 민주 시민 생활 등 민주 의식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6. 정서 순화와 합리적 사고력 배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
17. 애국심 함양과 안보에 도움이 되는 내용

위의 소재들 중에서 학생들의 흥미, 필요, 인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습 의욕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주제와 상황, 과업 등을 고려한 내용, 성취 기준 달성에 적합한 내용, 상호 작용에 적합한 내용, 심화 학습과 발전 학습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하여 활용한다.

개정 7차 교육과정에서는 7차 교육과정과 대동소이하며 일상생활과 일반적인 화제, 학생들의 흥미, 필요, 인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습 의욕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의사소통 능력, 탐구 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 기준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내용, 상호 작용에 적합한 내용, 문화 이해에 적합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화 요소를 소재에 통합하여 제시하였으므로 언어 활동에 문화 요소가 좀 더 자연스럽게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과 활발히 교류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한 문화 이해를 강조함으로써 문화에 관한 내용을 영어권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의 다양한 문화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7차 교육과정에서는 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17개의 소재와 더불어 문화에 관련된 소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영어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에 관련된 내용, 타 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생활 습관, 학교생활 등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다양한 문화와 우리 문화의 언어·문화적 차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즉 영어를 국제어로서 또는 글로벌 언어로 설정하여 상호 문화 간 이해와 의사소통을 강조하도록 권장한다. 이와 같이 다양해진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소재와 연결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어휘도 좀 더 다양해졌다. 따라서 개정 7차 교육과정 소재의 가장 큰 변화는 소재에 영어권 및 비영어권 문화 이해에 적합한 내용을 추가하여 문화 요소를 통합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2.1.3 교육과정의 어휘 선정

위에 제시된 소재를 바탕으로 교육과정별로 선정된 어휘와 그 선정기준

은 다음과 같다. 6차 교육과정의 초등 어휘는 중등의 기본 어휘를 바탕으로 선정되었는데, 그 까닭에 대해 초등 영어 교육과정 개발팀은 시간적 제약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학교 기본 어휘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비교적 타당성 있는 절차에 의해 선정되었음을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6차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의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현행 교육 과정(5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기본 어휘와 현행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과서(5차 교육과정) 중에서 빈도가 높은 어휘 조사 분석

2) 다음 어휘표에 의해 3,306 낱말 빈도 순서로 조사

(1) Carro, J. B & Richman, D. P. 1971. *The American heritage word frequency Book*. Boston: Houghton Mifflin Co.

(2) Ogden, C. K. 1968. *Basic English: International second Language*. New York: Jarcourt, Brace and Word Inc.

(3) *Longman classic stage 1: Basic words of 617 words*.

(4) *Longman dictionary word list of 276 words*.

(5) 5차 교육과정 필수어휘 753

(6) AFKN에서 방영된 다음 5개 프로그램의 어휘 1,303:

Cosby Show

Double Trouble

Family Ties

Gimme a Break

Three's Company

3) 위의 어휘를 6가지 출처별로 모두 포함된 것으로부터 한 곳에만 포함된 것을 분석하여 결과 분석

<표 2> 출처별 어휘 분석

출처	어휘 수
6	1~217
5	218~447
4	448~687
3	688~1012
2	1013~1678
1	1679~3306

- 4) 이상의 어휘 중 1,012개까지의 어휘를 기본으로 하여 이 중에서 문화적으로 한국의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삭제하고, 그 이하 빈도의 어휘 중에서도 유용하다고 간주되는 어휘는 합의를 거쳐 채택하여 991단어 선정
- 5) 991단어 중 초등학교 영어과 어휘 선정 기준에 어긋나는 낱말 293개를 제외하고, 대신 어린이용 국내외 교재와 Oxford 어린이 영어 사전에서 빈도가 높은 어휘를 조사하여 그 가운데 초등학교 학생들의 관심 소재와 관련된 어휘 92개를 새로이 추가
- 6) 의사 소통 예시문에 포함된 어휘를 기본 어휘표에 포함시킴
- 7) 외래어 126낱말은 전체 어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배두본 외, 1992, pp. 149-150), 김영숙, 1997에서 재인용]

교육 인적 자원부의 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V(1998, p. 146)에 따르면 7차 영어과 교육 과정은 학년 및 단계별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어휘 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3~4학년은 각각 80~120낱말, 5~6학년은 90~130낱말로 제한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450낱말 이내를 사용하며 30 낱말의 상

용 외래어 사용을 허용한다. 학년별 어휘 수에 있어서, 제 6차 영어과 교육과정과 달리 80~120낱말, 90~130낱말 등으로 급간을 둔 이유는, 영어를 처음으로 배우는 3학년의 경우 최소한의 기본적인 표현을 위해 일정한 수 이상의 어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학년이 올라가면 이미 학습한 단어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3학년에 비해 새로운 어휘의 필요성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3학년의 어휘 수가 4학년의 어휘 수보다 많아져야 되는데, 이것은 현실적인 필요에는 부합할지 모르나 우리의 상식에는 어긋나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3학년에서 새로운 어휘를 어느 정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학년 간의 위계도 용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휘 수에 급간을 두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영어의 수준을 통제하기 위해 4개 학년 전체의 어휘 수는 450낱말을 넘지 않게 한다는 제한이 있다(상용 외래어 30개 제외).

7차 교육과정의 어휘를 선정할 때는 빈도, 분포 범위, 학습 용이도, 학습자의 필요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였다. 기본 어휘표에는 모두 2067개의 어휘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초등 및 중등학교의 어휘 모두를 포함한 것이며 이 가운데서 어휘 앞에 *표시가 된 어휘는 모두 578개로 초등학교에서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어휘 관련 지침 및 기본 어휘 목록에서 드러난 첫 번째 문제는 지금까지 교육과정에 제시되었던 기본 어휘 목록은 이전의 교육과정에 제시되었던 기본 어휘 목록을 근거로 다소 임의적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기본어휘는 6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어휘 목록 중에서 충분한 연구 없이 단지 어휘 수를 줄여서 재정리 한 것이므로 6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어휘 목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였다. 즉 6차에서 제시된 초등 영어 어휘 목록은 대부분이 중학교에서 학습되어야 할 내용이 초등학교로 내려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중학생들이 배워야 할 학습 재용을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되는 결과를 자아낼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제 7차 교육과정의 기본 목록에 관한 또 다른 문제점은 2067개의 기본 어휘의 선정 기준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제시된 어휘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 언급되어 있지 않다(장경숙, 정규태, 2004). 중등학교 어휘 목록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제 7차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목록의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며, 그 선정 기준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7차 교육과정의 어휘 지침을 살펴보면 학년별 새로운 어휘 수를 ‘..낱말 내외’라고 규정짓고 있다. 정영국(2002)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7차 교육과정의 어휘 지침에서 ‘내외’를 어느 정도 범위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또한 그는 현행 어휘 사용 지침의 어휘 수 잔정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예로 현행 어휘 사용 지침에 의하면 파생어, 합성어, 감탄사, 의성어, 약자 및 축약형의 어휘 수 잔정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는 점과 동일어의 의미상 변화 및 문법 기능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한 개의 낱말로 취급하게 하는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개정 7차 교육과정에서는 기본 어휘 목록 선정 기준과 절차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어휘 목록 선정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휘 선정의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어휘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제7차 교육과정 어휘 목록을 기본 어휘의 준거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어휘 목록을 선정하였다. 어휘 선정에 사용된 자료는 Nation의 Most Frequent Word List 1과 2를 참고한 표제어(headword), Nation의 Academic Word List 표제어, 어휘자료 Basic English와 General Service List, American National Corpus, BNC((British National Corpus), Brown Corpus를 사용한 어휘, 제7차 교육과정 어휘 목록, 초등학교 권장 어휘 등

이다.

또한 학교 급별로 학습할 어휘 수의 선정 기준을 명료화하고 어휘 수를 소폭 증가시켰다. 어휘 수 통제로 인해 교과서 집필 및 교수·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자연스러운 언어 표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급 별 어휘 수를 약간 늘렸으며, 학교 급 간 어휘 수의 산출 근거를 제시하였다 (2007년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5), pp. 248-249).

2.2 어휘 선정 기준

2.2.1 일반 어휘 선정 기준

어휘는 언어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의 하나이며 언어학자들이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인 분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많은 어휘 중에서 어떤 어휘를 선정하여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어휘의 선정 기준은 교수의 목적과 주어지는 시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교육을 받은 원어민은 평균 약 17,000개의 어휘를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언어 학습에서 가르쳐야 할 어휘의 양보다는 무척 많다. 원어민이 알고 있는 모든 단어를 학습자들이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ESL 또는 EFL 환경의 영어학습자들에게 어떠한 기준에 의해 단어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단지 직관에 의해 만들어진 교과서와 객관적이고 이론적 접근을 통한 원칙에 의해 만들어진 교과서를 비교해 보았을 때 직관에 의해 만들어진 교과서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옴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Li와

Richards(1995)는 5개의 중국어 기본 입문서에 해당하는 교과서를 분석하였는데 모든 교과서의 어휘는 대략 1,800여개의 다른 단어들을 발견하였으며 모든 단어들이 5종류의 교과서에 모두 수록되어 있지는 않았다. 5개의 교과서의 어휘의 분포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5개 교과서의 어휘 분포

교과서 별 어휘	단어 수
1종류의 교과서에만 수록된 단어	1,141 단어 (63.4%)
2종류의 교과서에 수록된 단어	313 단어 (17.4%)
3종류의 교과서에 수록된 단어	155 단어 (8.6%)
4종류의 교과서에 수록된 단어	114 단어 (6.3%)
모든 교과서에 수록된 단어	77 단어 (4.3%)

[(Li and Richards, 1995), Richards, 2001에서 재인용]

이처럼 상당한 어휘(63.4%)가 단지 5개의 교과서 중에서 1개의 교과서에만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단어들은 중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단어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학습 어휘로서의 가치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2개의 교과서에만 수록되어 있는 단어에도 비슷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 3종류 이상의 교과서에 수록된 단어들을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교과서 집필진 중 3팀 이상이 그 단어를 교과서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수록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속하는 단어는 약 20%에 해당하는 346낱말 정도이다. 결론적으로 5종류의 교과서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하여 학습하는 학습자들은 그들이 공부하는 많은 어휘들 중 대부분 중요도가 낮은 단어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할 우려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언어학자들은 20세기 초 몇 십년간 어휘 선정(vocabulary selection)에 첫 번째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해왔다.

어휘 선정의 초기 접근은 어휘가 사용되는 빈도(frequency)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는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가 제일 먼저 가르쳐져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빈도는 어떤 단어가 문어 또는 구어에서 그 언어의 모국어 화자에 의해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어휘 선정에 있어 아주 중요한 기준이다. 빈도가 높다는 것은 그 어휘가 언어 사용자에게 자주 사용된다는 의미이므로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나타나고 자주 접하는 어휘를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 빈도라는 것은 어떤 매체를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는가하는 문제가 있다. 어린이들의 책에 기준을 두고 측정한 어휘 사용 빈도와 *Time Magazine*에 기준을 두고 측정한 어휘 사용 빈도는 다른 양상을 띠기 때문이다. 초기 어휘 사용 빈도 연구의 기준은 대중적인 읽기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하여 어휘 사용 빈도 목록을 만들었으며 오디오 테이프와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므로 인쇄 자료만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어휘 빈도 조사는 어휘 사용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적은 양의 어휘군(약 3,000여개)이 원어민이 매일 사용하는 어휘의 85% 이상을 차지하며, 기타 6000여개의 단어는 사용빈도의 단지 1%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교과서의 절반 정도의 단어는 각각의 교과서에 1번씩만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본문의 85%의 단어를 인지한다는 것이 본문의 85%를 이해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니다. 학습자들이 여전히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한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이는 본문에서 주요 단어이고 이런 단어들은 본문의 주제나 새로운 정보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들이다. Van Els, Bongaert, Extra, Van Os 그리고 Janssen-van Dieten(1984)도 역시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다.

어휘 빈도는 언어 교수의 어휘 목록 작성에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어

휘의 사용 빈도는 기준을 두고 있는 자료의 종류와 언어 표본에 따라 달라 지므로 사용 빈도가 어휘의 유용도(utility)와 반드시 같다고는 할 수 없다. 스포츠에 관한 글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어휘가 동화나 소설에서 사 용 빈도가 높은 어휘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언어 학습자들에게 비교적 중 요도가 높은 언어와 그 사용빈도를 말뭉치(corpus) 상에 명확하게 하기 위 해서 기본적인 말뭉치에는 넓은 범위의 언어 표본 중에서 언어학습자들을 겨냥한 교과서 및 그와 관련된 언어 표본을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말뭉치 상에 어휘의 범위나 분포도(dispersion)를 나타내고 있다. 높은 사 용 빈도와 더불어 넓은 사용 범위를 가진 어휘가 가르침을 목적으로 하는 언어자료에서는 가장 유용하다고 말할 수 있다.

100만 단어의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아래의 McCarthy(1990)의 연구 에서는 어휘의 사용 빈도와 범위의 차이를 보여준다(<표 4> 참고). 모든 단어마다 첫 번째 숫자는 말뭉치 상의 사용빈도, 두 번째 숫자는 15개의 언어 자료(스포츠, 신문 논설, 영화 감상문 등)의 종류 중에서 해당되는 언 어 자료의 숫자, 세 번째 숫자는 최대 500개의 개인 언어 표본 중에서 그 단어가 속해있는 언어 표본에 해당되는 숫자를 나타낸다.

<표 4> 어휘의 사용 빈도와 범위의 차이

words	frequency	text type	number	individual text sample
sections	49		8	36
farmers	49		8	24
worship	49		8	22
earnings	49		7	15
huge	48		11	39
address	48		11	36
conscious	47		14	34
protest	47		13	33
dependent	47		07	30
comfort	46		14	39
exciting	46		13	37

(McCarthy, 1990, pp. 84-85)

그러나 사용 빈도와 사용 범위는 언어 학습자들을 위한 어휘 목록에 반드시 적합하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높은 사용 빈도와 넓은 사용 범위를 가진 단어가 언어 입문 과정의 학습자들에게 반드시 가르칠만한 단어라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book, pen, desk, dictionary* 같은 단어들은 사용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언어 학습의 초기 단계의 학습자들에게는 가르쳐야 할 단어이다. 따라서 언어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어휘 목록에는 사용 빈도와 사용 범위 외에도 다른 어휘 선정 기준이 필요하며 그 기준에는 교수학습의 유용성(teachability), 모국어와의 유사성(similarity), 언어의 유용도(availability), 어휘의 적용 범위(coverage), 다른 어휘를 정의하는 정도(defining power)가 있다(Richard, 2001).

교수학습의 유용성은 직접교수법이나 전신반응교수법(TPR) 등을 활용하여 언어를 가르칠 때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런 교수법을 활용할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언어를 통해 가르치므로 이런 단어들은 학습 초반에 가르쳐져야 하며 그림이나 사진, 실물 등으로 쉽게 학습될 수 있는 단어여야 한다. 이러한 단어들을 교수학습의 유용성이 높은 단어라고 할 수 있다.

모국어와의 유사성은 현재 학습자들이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목표언어와의 유사성이 높은 단어를 위주로 어휘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어와 프랑스어의 단어 중에서 *table, page, nation* 등의 단어는 두 언어에서 사용이 유사하므로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영어 학습자들에게는 효과적인 어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국어와의 유사성이라는 기준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우리나라 영어학습자들에게는 맞지 않는다.

유용도란 어떤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유용하게 잘 사용되는가를 일컫는 것인데, 그 단어가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필요한가와 관련된다. 유용도가 높다는 것은 다른 어휘에 비해, 특정 어휘가 주어진 상황에서 더 잘 쓰인

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desk, chalk* 같은 단어는 일상적인 단어로 는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에서는 아주 자주 쓰이는 단어이다.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교실 사물의 어휘를 영어로 알고 있는 것이 어휘의 양을 늘리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용도가 낮은 어휘보다는 유용도가 높은 어휘를 선정해야 한다. 어떤 단어는 사용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어떤 주제가 주어졌을 때 쉽사리 이해되고 사용될 수 있는 단어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classroom*이라는 단어는 *desk, chair, teacher, pupil* 등의 단어를 쉽사리 떠올리게 한다. 따라서 이런 단어들은 그 주제에 대해 배우는 단계의 학습자들이 학습해야 할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단어들은 언어의 유용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어휘의 적용 범위를 고려한 어휘 선정의 예로는 *seat*이라는 단어를 들 수 있다. *seat*은 *stool, bench, chair*과 같은 단어보다 적용범위가 넓으므로 먼저 가르쳐져야 한다. 왜냐하면 *seat*은 *stool, bench, chair*이 가지고 있는 뜻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어떤 단어들은 다른 단어들을 정의하는 데 필요하므로 기본 어휘 목록에 선정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container*는 *bucket, jar, carton* 등의 단어를 정의하는 데 유용하므로 기본 어휘 목록에 선정될 수 있다.

Howatt(1984)도 사용 빈도 외에도 언어학습자들을 위한 어휘 선정 기준이 있다고 주장했다.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넓은 범위로 적용하여 선정한 단어가 필요하다.

- 1) Word frequency-사용 빈도
- 2) Structural value (all structural words included)-언어구조적 가치

- 3) Universality (words likely to cause offence locally excluded)-
보편성
- 4) Subject range (no specialist items)-사용 범위
- 5) Definition words (for dictionary making, etc.)-단어의 정의 정
도
- 6) Word-building capacity-단어 수용력
- 7) Style ("colloquial" or slang words excluded)-문체

(Hawatt, 1984, p. 256)

이 외에도 어휘 선정 기준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주장을 해왔는데 Haycraft(1978)는 학생이 필요로 하는 가장 일상적인 낱말과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휘를 언어 학습자들을 위한 어휘 선정 시 기초로 삼아야 할 지침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teach-teacher, work-worker 처럼 일반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낱말을 선정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Huebener(1959)는 가급적이면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실용적인 어휘에 치중해야 하며 개념이 분명하고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Mackey(1965)는 학습자의 필요성을 중시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어휘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어휘 선정에 적용되어야 할 5개의 조건을 우선 순위 별로 빈도, 적용 범위, 분포도, 유용도, 학습 가능성(learnability) 순으로 제시하였다. Thorndike(1944)도 분포와 빈도를 어휘 선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으며, Finocchiaro(1973)는 외국어 학습에서 학습자들의 환경과 경험에 직결되는 어휘를 우선 학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학자들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어휘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영어를 외국어를 배우는 환경(EFL)이므로 영어를

제 2언어로 배우는 환경(ESL) 보다 학습자들이 필요로 하는 어휘가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배두분(2002)은 어휘를 선정할 경우에는 빈도, 분포도, 유용도, 적용 범위, 친숙도(familiarity), 교실 내에서 의사소통의 유용성(classroom communication usefulness), 학습가능성과 같은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휘 선정의 기준인 빈도에 따르면 많이 사용되는 어휘는 적게 사용되는 어휘 보다 배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분포도란 낱말이 나타나는 글과 말의 종류가 많은 것을 지칭하는 말이며, 유용성이란 낱말의 상황적 사용 가능성(situational usefulness)을 말한다. 즉, *blackboard*, *desk*, *fork* 등의 낱말은 빈출도가 낮아도 유용성은 높다. 이는 일반 어휘 선정 기준 뿐만이 아니라 뒤에서 언급할 외래어 선정 기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범위는 낱말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물의 수효를 말하는 것으로 위의 학자들이 주장한 적용범위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bag*은 *suitcase*, *sack*, *handbag*보다 사용 범위가 넓다. 또한 범위는 그 낱말을 다른 낱말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 예로는 영어에서 범위가 큰 낱말의 하나인 *get*을 들 수 있다.

친숙도는 얼마나 자주 쓰는가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다양한 주제를 말할 때 화자들이 자주 거론하는 낱말은 친숙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학습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주제나 사용하기를 원하는 낱말을 물으면 교실 내에서의 의사소통에 얼마나 유용한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언어 간에 유사성이 많으면 학습이 용이하다고 보는 관점을 고려한 것이 학습가능성이다.

이들 연구를 종합하면 어휘 선정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항목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여 친밀도가 높은 어휘를 선정해야 한

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는 뒤에서 언급할 외래어 선정 기준에도 비슷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기준이다. 사실 세계 어느 언어든지 가장 빈도가 높은 단어들이 그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가장 빈도가 높은 단어들이 그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가장 유용한 어휘이며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 자질을 갖추게 하기에 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빈도수에 의한 어휘 선택은 학습에 유용하고 필요한 단어가 초기에 나타나지 않거나 어려운 단어가 초기에 나타나는 단점이 있어 빈도수만을 고려하여 단어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김인석과 정동빈, 1999).

따라서 기본 어휘 선정에는 여러 학자들이 지적한 빈도와 분포를 기준으로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단어들이 선정되어야 하며, 교육의 학습 효과나 능률면을 심사숙고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또한 학습자의 필요는 학습자들의 환경이나 배경, 목표 등과 더불어 학습자가 사용해야 할 어휘들을 선정하는 것과 관련된다. 따라서 학습자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외국어 어휘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어휘 선정 기준은 서로 충돌할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기본적인 핵심적인 낱말로부터 점차 확대하는 접근 방법이 바람직하며 학습자들의 경험과 지식, 관심사 등을 고려하여 표집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기본적인 명사, 동사, 형용사들을 가르치되 우선 구체어 (concrete words)를 먼저 가르치고 추상어(abstract words)를 뒤에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2 외래어 선정 기준

영어 교육에 있어서 초보 학습자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생들에게는

학습해야 할 어휘의 선정과 수의 제한은 학습 목표와 시간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며, 제한된 시간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영어를 배워야 하는 상황에서 영어 원어민들이 알고 있거나 사용하는 어휘를 모두 가르칠 수 없다. 모국어에 이미 알려져 굳어 있는 외래어를 수업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으나 우리 생활에서 쓰이는 모든 외래어를 초등영어 교육과정에서 다룰 수는 없다. 따라서 외래어에도 선정 기준이 필요한데 이는 앞서 언급했던 기본 어휘 선정에서 밝혔던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외래어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 면이다. 교육과정의 외래어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선정하는 것이므로 학생들이 그 뜻을 잘 모르거나 어려워하는 외래어는 오히려 학생들의 어휘 학습 부담을 가중시켜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어휘 선정 기준과 더불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라는 기준에 맞게 외래어를 선정하여야 한다.

Richards(2001)가 언급한 어휘 선정 기준 중에서 외래어를 선정하는 데 관련이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빈도: 학생들이 배우는 여러 교과서의 교과서에 높은 빈도를 보이는 외래어를 선정할 수 있다.
- 2) 분포도 : 학습자들이 배우고 있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언어 자료에서 어휘의 빈출도가 고루 높은 외래어를 선정해야 한다.
- 3) 유용도 : 빈도와 분포도가 높은 외래어 중에서 학습자들이 쉽게 접근하거나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외래어를 말한다. 예를 들면 *cup*, *television* 등은 학습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래어들이다. 이러한 단어들은 영어 학습 초기 단계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 4) 유사성: 외래어가 목표어인 영어의 발음과 유사성이 높은 것을 말하는데 이는 학습의 용이성과 맥락을 같이 한다. 유사성은 Prator(1967)가 제안한 Level 0과 Level 1 정도의 어휘를 말한다. Level 0은 전이(transfer)가 쉽게 되는 어휘로서 모국어와 목표어의 발음에서 차이점이 거의 없는 어휘들이다. 예를 들어 영어의 자음인 /m/, /n/, /k/, /p/, /s/, /z/ 등과 모음인 /a/, /e/, /i/, /o/, /u/ 등은 조음 방법이 국어와 거의 같아 다른 영어 발음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발음하기가 쉽다. 또한 영Level 1은 모국어의 두 가지 언어 항목을 목표어의 한 가지 항목으로 융합(coalescence)할 수 1있는 것들을 말한다. 국어의 [ㅂ], [ㅃ]을 영어에서 /b/로 발음할 수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한국의 상황에 접목시킬 때 모국어는 한국어 속의 외래어라고 볼 수 있고 목표어는 그 외래어에 해당되는 영어라고 볼 수 있다.
- 5) 교수 가능성: 외래어의 어휘가 그림이나 실물을 통하여 설명하기 쉬운 것을 의미하며 주로 명사에 해당한다.
- 6) 구체성: 영어의 기본 어휘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단어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어휘를 초보 단계에서 학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어와 영어의 차이로 인하여 어떤 어휘를 포괄하는 것보다는 구체성을 가진 어휘가 외래어로 사용되면 그 어휘를 익히기 쉽다.

앞에서 언급했던 일반 어휘 선정 기준에 관한 내용 중 Mackey(1965)가 주장했던 학습자의 필요성 및 실제 사용 어휘 위주의 선정 또한 외래어 선

정 기준에 부합되는 부분이다. 이 중 일반 어휘 선정에 적용되었던 5개의 조건 중 가장 우선순위가 낮았던 학습용이도는 외래어 선정 기준에서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학습용이도가 낮은 외래어는 새롭게 학습하여야 할 어휘로 간주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김석순(2003)에 따르면 외래어 선정 기준에는 역사성, 사회성 및 실용성 등이 있다. 역사성이란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속에 쓰여진 외래어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며, 사회성 및 실용성이란 사용 빈도수로 대신할 수 있다. 즉 국어와 같은 자격으로 외래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많이 사용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여러 학자들이 지적했던 사용빈도와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연구를 종합하면 외래어 선정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항목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얼마나 적은가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거나 학생들이 학습에 활용하는 교과서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친밀도가 높은 어휘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외래어는 주로 명사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구체물이나 사진, 그림 등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바탕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세림(2004)은 7차 교육과정의 전 교과서 129권을 대상으로 외래어를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위에서 제시한 Richards의 어휘 선정 기준을 참고하여 출현 빈도수, 분포 범위, 접근성, 유사성, 교육가능성, 구체성을 외래어 선정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여러 번 반복되는 외래어, 다양한 교과서에 등장하는 외래어를 우선 순위로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휘는 소재를 중심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배두분, 1997) 주제 중심 어휘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외래어를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17개의 소재별로 분류하였는데 이렇듯 외래어를 주제별로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외래어를 장기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Brewster, 1992)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어휘들에서 외래어를 선정하는 기준은 항목에 따라 값을 달리할 수 있다. 선정 기준에서 빈출도, 분포 범위, 접근성, 유사성에 비중을 두어 외래어를 선정하고, 학생들의 수준과 학습 목표에 적절하게 활용하여 제한된 어휘로 이루어진 영어 수업에서 학생들의 어휘 학습 부담은 줄이면서도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활동과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는 외래어의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다.

2.3 교육과정의 외래어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많은 외래어가 등장한다. 이 외래어들은 영어학습자에게 좋은 언어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Brewster(1992)는 초등학교생들에게는 모국어에 이미 널리 알려져 굳어져 있는 영어 단어를 위주로 선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 학습자들이 외래어 발음에 너무 익숙하게 된 나머지, 단어의 원래 발음을 들어도 그 발음이 원래 영어 단어의 발음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고 있다(김인석, 정동빈, 1999). 이렇듯 좋은 언어 자료인 외래어를 제대로 활용하면 학생들의 어휘 학습 부담도 줄일 수 있을뿐더러 발음 교육에도 효과가 있다. 따라서 외래어의 지도 및 효과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영어과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 및 그 변화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3.1 언어 자료로서의 외래어

국어대사전(이희승 편저, 1982)은 외래어를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말이 국어에 파고들어 익히 쓰여지는 말을 국어화한 외국어, 차용어, 들어온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처럼 쓰이는 단어로 들은말·전래어·차용어등의 개념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개념에 따라 무엇이 외래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판정 기준에 대해서 여러 견해를 종합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김문창(1985, p. 340)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 1) 역사성: 관습성이나 전통성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시간적으로 오래동안 쓰여온 외국어
- 2) 보편성: 공공성이나 사회성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것
- 3) 실용성: 우리의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며 꼭 필요한 것
- 4) 적응성: ‘귀화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발음·어형·의미 등이 국어의 언어 구조에 융화된 것
- 5) 단어성: 언어 단위 중 단어에 해당하는 것
- 6) 이상성: 민족적 자존심과 이상에 맞는 것
- 7) 유일성: 외국어에 해당되는 자국어가 없거나 새로 만들 수 없는 것

효과적인 언어 습득을 위한 어휘의 선정은 초보적인 것에서 출발하여 학습자 주변에서 흔히 쓰이는 친숙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배두본, 1999)는 어

휘 선정 기준의 한 방향에서 볼 때 외래어의 언어 자료로서의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읽기의 궁극적인 목적이 문자의 해독과 의미를 파악하는 것으로 볼 때 이미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 외래어를 약간의 발음교정과정과 함께 영어 문자로 제시한다면 다른 어휘에 비해 쉽게 인식될 것이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외래어를 조사·분석한 결과(김미래, 2001)에 따르면, 외래어 중에는 본래의 어휘가 짧아진 경우, 본래의 어휘가 다르게 바뀌어진 경우, 외래어의 우리말 표기와 영어 원어민의 발음이 다른 경우가 있었다. 또한 한국어와 영어 음소의 구성에 의한 차이로 인해 CV(C)형의 발음에 익숙한 한국인이 CCCVCCCC형과 같은 음절을 읽을 때, 영어의 자음군 사이에 어떤 모음을 삽입하여 한국식으로 영어를 발음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영어는 강세박자인 반면에 한국어는 음절박자이므로 그 차이에 영어의 한국식 발음이 나타난다. 즉 한국인은 낱말 하나 하나를 철저히 발음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영미인은 강약의 리듬을 타면서 강한 부분은 확실하게, 약한 부분은 아예 발음을 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외래어의 한국식 발음에 너무 익숙하게 된 나머지 단어의 원래 발음을 들어도 그 발음이 외래어의 발음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외국인과의 올바른 의사소통 및 효과적인 영어 학습을 위하여 언어 자료외래어의 올바른 지도가 필요하며 특히 초등학생들에게는 모국어에 이미 널리 알려져 굳은 외래어를 수업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러 학자들이 내세웠던 어휘 선정 기준의 요소 중 ‘친밀도’와 관련해서도 영어 외래어의 언어 자료적인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인에게는 한글에 대한 친밀도가 나타나며 영어 교육에 있어서는 한글 친밀도를 영어로 변안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이 한국어로 잘 알고 있는 친숙한 주변의 물건이나 장소, 직업 등을 위주로 어휘를 선

정하여 이것들을 영어로 무엇이냐 하는가를 먼저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에게 호기심과 흥미를 갖게 할 수 있다. 박영임(2006)에 의하면 영어 외래어의 언어 자료로서의 가치 및 영어 외래어를 통한 어휘 지도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영어에 대한 친숙감을 주고 자신감을 창출할 수 있다. 초등영어교육의 목표에 가장 부합되는 흥미와 자신감이 생긴다면 의사소통능력은 저절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잘못된 외래어의 발음을 교정할 수 있다. 발음의 토착화 및 화석화(fossilization) 현상으로 어려서 습득한 어휘의 발음은 교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발음 뿐 아니라 강세와 억양에 따라서도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이런 외래어를 일상생활에서 한국식 발음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어휘 학습에서 외래어의 효과적인 활용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다.

2.3.2 교육과정 외래어 목록의 변화

6차 교육과정에 초등 영어 교육이 시작된 이래로 현재 7차 교육과정과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적용할 개정 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상에 외래어목록은 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6차 교육과정에서는 3학년 100낱말, 4학년 100낱말, 5학년 150낱말, 6학년 150낱말로써, 총 어휘 수 500낱말 내외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외래어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교과서나 이미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어휘 중에서 빈출도가 높고 발음에 커다란 차이가 나지 않는 126 낱말을 선정하여 외래어로 인정하고 전체 어휘 수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고 있다

(이홍배 외, 1995, pp. 142-145). 그러나 실제 교육부(1997)의 외국어과 교육과정(I)에 따르면 53개의 외래어를 선정하였고 그 이행과정의 정확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6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외래어 목록은 다음과 같다.

album, banana, bench, bus, butter, cake, camera, card, cassette, cheese, coat, coffee, computer, crayon, ice cream, cup, dress, engine, fork, game, gas, group, guitar, hamburger, hiking, ink, juice, medal, melon, news, orange, party, pen, piano, pin radio, ribbon, robot, rocket, salad, shirt, skate, soup, sports, supermarket, tape, taxi, team, tomato, truck, tulip, video, violin(전체 53개)

7차 교육과정에서는 3학년과 4학년은 각각 80~120낱말, 5학년과 6학년은 각각 90~130낱말로 새로운 어휘 수를 제한하고 있다. 전체 450낱말 이내를 학습하도록 하고 있고 30낱말 정도의 상용 외래어를 허용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은 다음과 같다.

album, banana, bench, blouse, bus, butter, cake, card, center, cheese, chocolate, coat, coffee, computer, crayon, cup, dollar, fork, game, group, hamburger, hiking, ice cream, juice, medal, news, orange, party, pen, piano, pin, pizza, radio, ribbon, robot, salad, shirt, sign, skate, soup, sports, supermarket, sweater, tape, taxi, team, tomato, truck, video, violin(전체 50개)

생활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위의 외래어는 새로운 어휘로 간주하

지 않으며 이 가운데 3~6학년에서는 30낱말, 7~10단계에서는 20낱말 정도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6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외래어 목록과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을 비교하였을 때 제시된 외래어의 수는 각각 53개와 50개로 비슷하나 다음의 <표 5>을 보면 교육과정별로 추가되거나 삭제된 외래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5> 6차와 7차 교육과정별 동일, 추가, 삭제된 외래어

6차와 7차 교육과정에 동일하게 제시된 외래어	album, banana, bench, bus, butter, cake, card, cheese, coat, coffee, computer, crayon, cup, fork, game, group, hamburger, hiking, ice cream, juice, medal, news, orange, party, pen, piano, pin, radio, ribbon, robot, salad, shirt, skate, soup, sports, supermarket, tape, taxi, team, tomato, truck, video, violin (43개)
7차 교육과정에 추가된 외래어	blouse, center, chocolate, dollar, pizza, sign, sweater (7개)
7차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외래어	camera, cassette, dress, engine, gas, guitar, ink, melon, rocket, tulip (10개)

6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에 동일하게 제시된 외래어는 *album*, *banana* 등을 비롯하여 모두 43개이다. 6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는 있었으나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서 삭제된 외래어는 *camera*, *cassette*, *dress*, *engine*, *gas*, *guitar*, *ink*, *melon*, *rocket*, *tulip*으로 모두 10개이다. 교육과정이 6차에서 7차로 바뀌면서 외래어 목록에 새롭게 추가된 외래어는 *blouse*, *center*, *chocolate*, *dollar*, *pizza*, *sign*, *sweater*로 모두 7개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새롭게 추가되거나 삭제된 외래

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

2006년 8월 25일에 고시된 개정 7차 교육과정에서는 3학년은 110 낱말 이내, 4학년은 120 낱말 이내, 5학년: 130 낱말 이내, 6학년: 140 낱말 이내로 전체 500 낱말 내를 학습할 것을 권장하며, 기본 어휘 목록에 제시된 초등 권장 어휘 중에서 375 낱말 이상을 학습할 것을 권장한다. 2008년 12월 26일 고시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3학년과 4학년은 120 낱말 이내, 5학년과 6학년은 140낱말 이내로 전체 520낱말 내를 학습할 것을 권장하며, 기본 어휘 목록에 제시된 초등 권장 어휘 중에서 390 낱말 이상을 학습할 것을 권장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외래어 지침은 생활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아래의 낱말들은 외래어로서 새로운 어휘로 간주하지 않는다. 아래 낱말 외에 3~6학년과 7~10학년에서 각각 40 낱말 이내의 외래어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apartment, badminton, banana, bowling, bus, butter, cake, card, cheese, chocolate, coffee, coke, computer, cream, cup, film, fork, guitar, hamburger, hotel, ink, Internet, juice, lemon, marathon, orange, pen, pizza, plastic, program(BE programme), quiz, radio, robot, rocket, salad, sandwich, sausage, shirt, skate, spaghetti, tape, taxi, television/TV, tennis, tire(BE tyre), tomato, truck, video, violin, website (전체50개, BE는 British English의 줄임말로 영국 영어를 의미한다.)

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의 외래어 지침의 차이점은 7차 교육과정에서는 주어진 50개의 외래어 가운데 30개를 선택하도록 하는 반면에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주어진 50개의 낱말 이외에 40낱말 이내의 외래어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주어진 50개의 외래어

와 더불어 최대 90개 내외라는 외래어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학년별로 제한된 새로운 어휘 외에 학습자의 어휘 학습 부담이 적은 외래어를 최대한 활용하여 영어 학습의 다양함과 풍부한 활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반면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40개 내외의 외래어가 어느 범위까지인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학습자와 교사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며, 학습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외래어라고 간주하고 도입한 외래어가 만약 학습자 입장에서 잘 모르는 어휘라서 학습 부담이 생긴다면 학습자의 어휘 학습 부담을 줄여준다는 외래어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외래어 도입의 적절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많은 외래어들이 추가되거나 삭제되었다. 7차 교육과정과 개정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의 변화는 다음의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 따르면 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에 동일하게 제시된 외래어는 *banana, bus* 등 모두 27개이며, 7차 교육과정에는 제시되어있지 않았으나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새롭게 도입된 외래어는 *apartment, bowling* 등을 비롯한 23개의 낱말이다. 7차 교육과정에는 제시되어 있었으나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삭제된 외래어는 *album, bench* 등을 포함한 23개의 낱말이다.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에서는 50개의 외래어를 제시하고 있으나 교육과정 개정 시 어떠한 선정 기준에 의하여 거의 반에 가까운 외래어를 삭제하고 새로운 외래어를 도입했다는 사실을 다음의 <표 6>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 외래어를 추가하고 삭제하였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6> 7차와 개정 교육과정별 동일, 추가, 삭제된 외래어

7차와 개정교육과정에 동일하게 제시된 외래어	banana, bus, butter, cake, card, cheese, chocolate, coffee, computer, cup, fork, hamburger, juice, orange, pen, pizza, radio, robot, salad, shirt, skate, tape, taxi, tomato, truck, video, violin (27개)
개정교육과정에 추가된 외래어	apartment, badminton, bowling, coke, cream, film, guitar, hotel, ink, Internet, lemon, marathon, plastic, program(BE programme), quiz, rocket, sandwich, sausage, spaghetti, television/TV, tennis, tire(BE tyre), website(23개)
개정교육과정에서 삭제된 외래어	album, bench, blouse, center, coat, crayon, dollar, game, group, hiking, ice cream, medal, news, party, piano, pin, ribbon, sign, soup, sports, supermarket, sweater, team (23개)

위의 <표 6>에 따르면 7차 교육과정과 개정 7차 교육과정에 동일하게 제시된 외래어는 *banana*, *bus* 등을 비롯하여 모두 27개이다.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는 있었으나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외래어 목록에서 삭제된 외래어는 *album*, *bench* 등 모두 23개이며,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외래어 목록에 새롭게 추가된 외래어는 *apartment*, *badminton* 등 23개이다. 새롭게 추가된 외래어 중에서 *guitar*, *ink*, *rocket*은 6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는 있었으나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서는 삭제되었다가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다시 외래어 목록에 등장한 어휘이다. 이처럼 6차에서 7차 교육과정으로 바뀔 때와는 달리 7차에서 개정 7차 교육과정으로 바뀔 때에는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의 50개의 에서 거의 반에 해당하는 23개의 외래어에 변동이 있으나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새롭게 추가되거나 삭제된

외래어에 대한 근거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단지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album*은 사진첩으로, *coat*는 외투로, *news*는 새 소식으로, *party*는 모임, 연회, 잔치로, *sign*은 서명으로, *sports*는 운동경기나 운동으로, *team*은 조 또는 편으로 순화하여 쓰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삭제된 것으로 추정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고; <http://www.korean.go.kr>).

2.4 선행 연구

지금까지의 외래어를 분석한 연구는 주로 우리말로 된 교과서에 등장한 외래어를 다루고 있는 것이 많으며 그 내용 역시 국어 순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전 교과서를 대상으로 초등영어교육을 위한 외래어 연구로는 김영태(1993)와 김미래(2001), 김세림(2004), 선행종(2005)의 연구가 있으며, 초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외래어의 활용 및 그 효과에 관한 윤희선(2003)의 연구가 있다.

김영태(1993)는 초등학교 6개 학년 전체 교과서인 143권을 대상으로 과목별로 제시된 외래어의 수, 고유명사, 영문 및 약어, 보통 명사를 분석하였고, 보통 명사 중에서 학습상의 친숙도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영어 교육을 위한 외래어 어휘 311개를 선정하였다. 그의 연구 결과는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선정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김미래(2001)는 초등학생들의 영어수업에 이미 알려져 굳어 있는 외래어를 수업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밝히고 외래어의 올바른 지도에 중점을 두고 초등학교 영어교재 편찬 시 어휘 선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외래어 분석 자료를 개발하였다. 6차 교육과정의 모든 교과서 및 7차 교육과정의 1~4학년 교과서(3, 4학년은 1학기 교과서만 분석)를 분석하여 과목별

로 제시된 외래어의 어휘수와 빈출도를 조사하여 영어 교과서 외래어 선정 시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올바른 외래어의 사용에 관한 학생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영어 수업의 지도 방향을 제시하고 올바른 발음지도를 위해 한국식 발음에 대한 교사 연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세림(2004)은 7차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제작된 추등학교 전 교과목의 교과서에 나타난 외래어를 학년별, 교과별로 분석하여 빈도와 분포 범위를 조사하였으며, 6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와 비교하여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 새로 등장한 외래어를 알아보았다. 또한 외래어의 출현 빈도와 교과서별 분포 범위, 접근성, 유사성, 교수가능성, 구체성을 고려하여 영어 학습에 필요한 외래어 121개를 선정하여 영어 수업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선형중(2005)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교과서 133권의 외래어를 분석하였으며 영어로 된 것, 약어로 된 것과 삽화의 내용까지 모두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분야별로 적합한 외래어를 선정하여 초등학교 영어 지도 및 교재 개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학년별 분석 기준에 따라 추출한 보통명사와 고유명사들은 초등학교의 영어 학습 시 상황에 따라 의사소통을 위한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교재 개발 시 기초자료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모든 학년에서 똑같이 적용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제시된 자료들은 후속 연구로 보완한다면 초등영어 교육을 위한 외래어의 새로운 선정 기준에 다른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윤희선(2003)은 학생들이 쉽게 영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외래어 어휘를 활용한 수업방법을 구안하였다. 현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영어교육을 2학년 아동에게도 적용하기 위해 재량활동시간을 이용하여 외래어 활용 수업을 한 결과 아동들이 문자언어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였으며 실생활에서 익히 접하고 있는 외래어를 더 쉽게 이해하고

인지하였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통해 외래어를 활용한 문자 학습이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도를 높이고 단어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었으며 학년의 수준에 맞는 외래어 어휘를 통해 다른 어휘와 더불어 더 학습효과가 높은 영어수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선행 연구를 종합해보면 외래어는 학습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합한 외래어활용을 통해 영어 수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주로 전체 교과서에 등장한 외래어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영어 교육과정상의 외래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영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외래어 선정의 타당성의 검증 및 교사들의 인식 정도를 분석하는 단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외래어에 관한 조사·분석 및 교사들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선행 연구를 통해 추출한 외래어와 영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외래어는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성 연구도 필요하다.

Ⅲ. 연구 내용 및 방법

3.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개정7차 교육과정에 수록된 어휘 목록 중 외래어 부분에 관한 연구로 현재 초등학교 교사들의 외래어 선정 기준에 대한 인식 정도 및 교육과정 외래어 목록에 관한 이해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부산 및 경남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 1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부록> 참조)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 중에서 남자 교사는 22명으로 17.2%를 나타냈으며, 여자 교사는 106명으로 82.8%를 나타내었다.

<표 7> 연구 참여자 분석(교육 경력 정도)

교육 경력	인원 수(명)	퍼센트(%)
3년 미만	15	11.7
3~5년	28	21.9
6~8년	40	31.3
9~11년	22	17.2
12~14년	3	2.3
15~18년	5	3.9
19~29년	14	10.9
30년 이상	1	0.8
전체	128	100.0

연구 참여자인 초등학교 교사들의 교육 경력을 분석한 결과 교육 경력이 6~8년인 교사가 40명(31.3%)으로 가장 많았으며, 3~5년의 교육 경력의 교사가 28명(21.9%)으로 그 뒤를 이었다. 9~11년의 교육 경력의 교사는 22명(17.2%)으로 연구 참여자 중에서 3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뒤로는 교육 경력 3년 미만(15명, 11.7%), 19~29년(14명, 10.9%), 15~18년(5명, 3.9%), 12~14년(3명, 2.3%), 30년 이상(1명, 0.8%) 순이었다(<표 5>참고).

아래의 <표 8>은 연구 참여자인 초등학교 교사를 영어 전담 경력이라는 변인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영어 전담 경력이 1년 미만인 교사가 61명으로 연구 참여자 중 가장 높은 비율(47.4%)을 차지했으며, 영어 전담 경력이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인 교사는 42명으로 32.8%를 차지했다. 2년 이상에서 4년 미만의 영어 전담 경력을 가진 교사는 16명(12.5%)이었으며, 4년 이상의 영어 전담 경력의 교사는 9명으로 전체의 7%이었다.

<표 8> 연구 참여자 분석(영어 전담 경력 정도)

영어 전담 경력	인원 수(명)	퍼센트(%)
1년 미만	61	47.7
1년 이상~2년 미만	42	32.8
2년 이상~4년 미만	16	12.5
4년 이상	9	7
전체	128	100.0

아래에 제시된 <표 9>은 연구 참여자들을 영어 점수 및 영어 실력을 변인으로 하여 조사한 것이다.

<표 9> 연구 참여자 분석(영어 실력 관련)

영어 실력	인원 수(명)	유효 퍼센트(%)
매우 높음	7	5.5
높음	9	7.0
중간	67	52.3
낮음	38	29.7
매우 낮음	7	5.5
전체	128	100.0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시 자신의 영어 실력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는 공인된 영어 시험 점수(TOEFL, TOEIC, TEPS)를 기준으로 교육청에서 교사 연수 시에 기준으로 사용하는 점수 등간 표를 활용하였다. 공인된 영어 시험 점수가 없는 교사는 자신의 영어 실력을 5단계로 나누어 설문지에 표시하게 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영어 실력 관련 변인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자신의 영어 실력이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는 교사가 67명(52.3%)으로 가장 많았고, 영어 실력이 낮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38명(29.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영어 실력이 높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9명(7%)이었으며, 자신의 영어 실력이 매우 높거나 매우 낮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각각 7명(5.5%)이었다.

아래에 제시된 <표 10>은 연구 참여자들을 교사 영어 연수 관련사항을 변인으로 하여 조사한 것이다.

<표 10> 연구 참여자 분석(교사 영어 연수 관련)

교사 영어 연수 정도	인원 수(명)	유효 퍼센트(%)
30시간 미만	46	35.9
30~60시간 미만	8	6.3
60~120시간 미만	14	10.9
120시간 이상	60	46.9
전체	128	100.0

연구 참여자를 교사 영어 연수 변인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120시간 이상 영어 연수를 받은 교사가 60명(46.9%)으로 가장 많았고, 30시간 미만의 영어 연수를 받은 교사는 46명(35.9%)이었다. 60~120시간의 영어 연수를 받은 교사는 14명(10.9%)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30~60시간의 영어 연수를 받은 교사는 8명(6.3%)으로 나타났다.

3.2 연구 도구

초등학교 교사들의 외래어 선정 기준에 대한 인식 정도 및 교육과정 외래어 목록에 관한 이해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사 1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체적인 내

용은 다음에 제시된 <표 11>과 같다.

<표 11> 설문지 구성

내 용	문항 수	문항 구성 비(%)	채점	시간(분)
개정 7차 외래어의 내용 인지 정도	40	27.03	정답(1) 오답(0)	
학생의 학습 부담과 외래어의 관련성 정도의 인식 여부	20	13.51		
영어 발음의 유사성	20	13.51	점수 없음	20분
외래어 교수의 수월성	20	13.51	(Likert	
학생들의 외래어의 사용 빈도	20	13.51	Scale	
새롭게 포함시킬 외래어	20	13.51	사용)	
외래어 목록의 선정 기준	8	5.42		
전 체	148문항	100		

설문지의 첫 번째 부분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개정 7차 교육과정 어휘목록지침의 외래어로 선정된 50개의 단어에 속하는 단어와 속하지 않는 단어가 각각 20개씩 섞여있는 것 중에서 개정 7차의 어휘목록지침의 외래어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얼마만큼 고를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문항들이다. 이 중 개정 7차 교육과정에 속하는 20개의 외래어, 즉 정답인 외래어는 개정 7차 교육과정에 속하는 50개의 외래어 중에서 BNC의 빈도 수를 기준으로 상위 20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개정 7차의 외래어 목록에 속하지 않는 20개의 외래어(오답에 속하는 외래어 20개)는 7차 교육과정의 어휘 목록에는 속해 있었으나 개정 7차 교육과정에서는 제외된 외래어와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의 모든 교

과서에 5번 이상 등장한 외래어 중에서 BNC의 빈도 수가 높은 상위 20개의 외래어를 선정한 것이다. 각각 20개의 외래어가 속해있는 40개의 보기(문항 1번~40번) 중에서 개정 7차 교육과정에 속한다고 생각되는 외래어 20개를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교사들의 개정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에 관한 판단 정도를 알아보았다. 아래에 제시된 <표 12>은 설문지의 부분 1에 제시된 40개의 외래어 중에서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된 외래어 20개이다.

<표 12>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된 외래어

banana	cream	guitar	cup	lemon
card	film	hotel	radio	marathon
plastic	quiz	sandwich	spaghetti	tennis
program	rocket	sausage	television/TV	Internet
전체 20개				

이 중에서 *banana*, *card*, *cup*, *radio*는 7차 및 개정 7차 교육과정에 동일하게 제시된 외래어이고, *guitar*와 *rocket*은 6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는 있었으나 7차 교육과정 때 삭제되었다가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다시 추가된 외래어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14개의 외래어는 7차 교육과정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개정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 새롭게 도입된 외래어이다. 각각의 외래어에 대해 개정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표시하게 하였다. 어휘 지침 중 학생들이 새롭게 학습하는 어휘로 간주하지 않는 외래어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표시하게 하여 외래어 목록에 대한 교사들의 판단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이

다.

다음에 제시된 <표 13>은 설문지의 부분 1에 제시된 40개의 외래어 중에서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외래어 20개이다.

<표 13>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외래어

center	piano	shower	mouse	software
ice cream	album	mask	model	soup
dollar	monitor	mark	ski	printer
blouse	ham	sweater	musical	supermarket
전체 20개				

위에 제시된 20개의 외래어 중에서 *center, ice cream, dollar, blouse, piano, album, sweater, soup, supermarket* 등 9개의 외래어는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는 제시되어 있으나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삭제된 외래어이다. 7차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삭제된 외래어는 23개 인데 이 중에서 분포범위와 빈도 수를 고려하여 상위 9개의 외래어를 선정한 것이다. 나머지 11개의 외래어는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는 제시된 바가 없으나 앞에서 언급한 대로 외래어 선정 기준 중 분포 범위를 고려하여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의 모든 교과서에 5번 이상 등장한 외래어 중에서 BNC의 빈도 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한 것이다.

설문지의 두 번째 부분(문항 41번~60번)은 외래어를 학생들이 배우기 쉬운가(뜻 알기, 철자쓰기, 읽기, 듣기, 함께 쓰이는 다른 표현 등을 고려)에 관한 질문이다. 설문지의 부분 2부터 부분 5 까지(문항 41번~ 120번)의 보기에 제시된 외래어는 각 부분마다 모두 같은 내용의 외래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분 1에 제시된 개정 7차 교육과정에 속하는 외래어 20개와 속하

지 않는 외래어 20개인 총 40개의 외래어 중 BNC의 빈도 수가 높은 외래어를 각각 10개씩 선정하였다. 선정된 외래어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제시된 <표 14>와 같다.

<표 14> 설문지 부분 2에 제시된 외래어

개정 7차 교육과정에 속하는 외래어(10개)	banana	marathon	cup	television/TV	tennis
	film	quiz	plastic	sandwich	hotel
개정 7차 교육과정에 속하지 않는 외래어(10개)	piano	blouse	ham	ice cream	musical
	mouse	sweater	shower	printer	soup
전체 20개					

위의 <표 14>의 개정 7차 교육과정에 속하는 외래어 10개 중에서 *banana*와 *cup*은 6차 교육과정 및 7차 교육과정에도 속했던 외래어이며, 나머지 8개의 외래어는 개정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 새롭게 제시된 외래어이다. 그리고 개정 7차 교육과정에 속하지 않는 외래어 10개 중에서는 *ice cream*, *piano*, *soup*은 6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는 속해있었으나 개정 7차 교육과정에서는 삭제된 외래어이며, *blouse*, *sweater*는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삭제된 외래어이다. 나머지 5개의 외래어인 *ham*, *musical*, *mouse*, *shower*, *printer*는 영어과 교육과정에는 한 번도 제시된 적은 없으나 앞에서 언급한 대로 외래어 선정 기준 중 분포 범위를 고려하여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의 모든 교과서에 5번 이상 등장한 외래어 중에서 BNC의 빈도 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한 것이다.

보기에 제시된 20개의 외래어를 학생들이 배우기 쉬운가(뜻 알기, 철자

쓰기, 읽기, 듣기, 함께 쓰이는 다른 표현 등을 고려)에 관하여 Likert Scale에 따라 매우 부담이 크다, 부담이 크다, 보통이다, 부담이 적다, 거의 부담이 적다의 5단계로 나누어 해당되는 부분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1~5점으로 환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부록> 참조). 각각의 제시된 외래어에 따라 학생들이 배우기 쉬운 정도를 표시해 봄으로써 교육과정의 외래어가 교수 학습용 어휘 선정 기준의 하나인 학습의 수월성(김영숙, 1997)을 잘 고려하였는지 교사들의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설문지의 부분 3(문항 61번~80번)은 제시된 외래어의 실제 영어 발음과 한국어 발음의 유사성에 관한 질문이다. 제시된 외래어 20개는 <표 14>와 같으며 표시 방법 또한 Likert Scale에 따라 실제 영어 발음과 한국어 발음이 매우 다르다, 조금 다르다, 보통이다, 조금 유사하다, 매우 유사하다는 5단계로 나누어 해당되는 부분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김영숙(1997)과 Brown(2000)이 강조했던 교수 학습용 어휘 선정 기준의 하나인 실제 영어 발음과의 유사성을 잘 고려하였는지 교사들의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설문지의 부분 4(문항 81번~100번)는 주어진 외래어를 교사가 학생에게 지도할 때의 수월성 정도(뜻 알기, 철자쓰기, 읽기, 듣기, 함께 쓰이는 다른 표현 등을 고려)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제시된 외래어 20개는 <표 14>와 같으며 표시 방법 또한 Likert Scale에 따라 제시된 외래어를 교사가 학생에게 지도하기가 매우 어렵다, 지도하기가 조금 어렵다, 보통이다, 지도하기가 조금 쉽다, 지도하기가 매우 쉽다의 5단계로 나누어 해당되는 부분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표시한 부분을 각각 1~5점으로 환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교수 학습용 어휘 선정 기준인 지도의 수월성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설문지의 부분 5(문항 101번~120번)는 학생들의 외래어 사용 빈도를 묻

는 질문이다. 역시 제시된 외래어 20개는 <표 14>와 같으며 표시 방법 또한 Likert Scale에 따라 제시된 외래어를 학생들이 일상생활에 거의 쓰지 않는다, 조금 쓴다, 보통이다, 조금 쓰인다, 많이 쓰인다는 5단계로 나누어 해당되는 부분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표시한 부분을 각각 1~5점으로 환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부분을 통하여 교수 학습용 어휘 선정 기준인 사용 빈도에 관한 교사들의 이해 정도를 알아보았다.

다음은 설문지의 부분 6인 문항 121번~140번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 관한 제언 및 교육과정에 추가로 도입할만한 외래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알기 위한 부분이다. 설문지 part 6의 보기에 제시된 외래어 20개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 15>과 같다.

<표 15> 설문지 부분 6에 제시된 외래어

wheelchair	helmet	pin	ribbon	Olympic
centimeter	bench	hiking	curtain	medal
announcer	lens	ballet	gas	steak
pineapple	doughnut	zipper	camera	building

전체 20개

설문지의 부분 6(문항 121번~140번)은 전 과목의 교과서에는 최소 5회 이상 등장하나 개정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것 중 BNC에 따라 빈도가 높은 외래어를 20개 선정한 것이다. 이 중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이 새롭게 교육과정에 편입시켜야 할 외래어를 골라봄으로써 교육과정에 추가로 도입할만한 외래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고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설문지의 마지막 부분인 부분 7(문항 141번~148번)은 외래어 목록의 선정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교사들이 교육과정의 어휘 선정 기준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어휘 선정 기준 중에서 한국인의 발음과 실제 영어 발음과의 유사성, 우리 나라에서 초등학교 학생의 경험 범위 내에서 활용 정도, 영어권에서 자주 사용되는 정도, 적용 범위, 학습가능성,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어휘의 유용도, 다른 단어를 정의하는 데 쓰이는 정도, 다양한 영역에서 쓰이는 정도인 분포도를 Likert Scale에 따라 거의 중요하지 않다, 다소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는 5단계로 나누어 해당되는 부분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표시한 부분을 각각 1~5점으로 환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지의 각 부분별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6>와 같다.

<표 16> 설문지 각 부분별 신뢰도

부분 번호	부분 설명	N	문항 수	Alpha값
1	개정 7차의 어휘목록 외래어 판별	128	40	0.4907
2	외래어에 대한 학생 부담 정도	128	20	0.9343
3	외래어에 대한 발음의 유사성 정도	128	20	0.9363
4	외래어에 대한 지도의 수월성 정도	128	20	0.9444
5	외래어에 대한 일상생활의 유용성	128	20	0.9141
6	새롭게 포함시킬 외래어	128	20	0.8343
7	외래어 선정 기준	128	8	0.7956
전체 부분: 7				

설문지의 부분 1은 연구과제 (1)인 초등학교 교사들이 가르쳐야 할 어휘 목록과 외래어를 구분하고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가에 관련된 것으로 연구 결과 및 논의의 첫 번째 부분에서 다루었던 부분이며 40개의 외래어 중

개정 교육과정의 외래어에 속하는 단어 20개를 찾는 O, X 문제이다. 신뢰도는 0.4907로 낮은 편인데 이는 40개 중에 20개를 고르는 O, X 퀴즈 형태의 문제 문항이 그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할 수 있다.

설문지의 부분 2~6은 연구과제 (2)인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정도에 관련된 것으로 모두 각 부분 마다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분 2는 외래어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부담 정도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것으로 신뢰도는 0.9343이다. 설문지의 부분 3은 외래어 발음과 원래 영어 발음과의 유사성 정도를 분석한 것이며 신뢰도는 0.9363이다. 부분 4는 외래어에 대한 지도의 수월성 정도를 분석한 것이며 신뢰도는 0.9444이다. 부분 5는 주어진 외래어가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유용한 지를 살펴본 것이며 신뢰도는 0.9141이다. 설문지의 부분 6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외래어 외에 새롭게 포함시킬 외래어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 조사로 신뢰도는 0.8343이다.

설문지의 부분 7은 연구과제 (3)인 외래어 선정 기준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정도에 관한 것으로 모두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뢰도는 0.7956이다.

3.3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의 기간은 2008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이며, 연구 계획 및 자료 수집, 설문 조사 준비, 설문 조사 실시, 결과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연구 계획 및 자료 수집 단계(2008. 5~2008. 8)에서는 어휘 통제 및 어휘의 선정 기준, 교육과정별 어휘와 관련된 문헌 및 선행 연구를 검

토하여 최근 연구 경향을 알아보고 구체적인 연구 주제, 내용 및 방법을 모색하였다.

둘째, 설문 조사 준비 단계에서(2008. 9~2008. 10)는 연구 계획 및 자료 수집 단계에서 살펴보았던 어휘 통제의 조건 및 어휘 선정 기준에 바탕을 두고 BNC(<http://corpus.byu.edu/bnc>, <http://www.kilgarriff.co.uk/bnc-readme.htm>)를 참고하여 교육 과정의 외래어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셋째, 설문 조사 실시 단계에서(2008. 11~2009. 2)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외래어 선정 기준에 대한 인식 정도 및 교육과정 외래어 목록에 관한 이해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부산 및 경남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 12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질의 및 응답 시간을 가졌다. 2008년 11월~12월에는 경남 지역의 영어연구회 교사 및 부산의 북부교육청, 남부교육청, 서부교육청, 해운대교육청 소속의 초등학교 영어 전담 교사를 대상으로 우편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으며, 2009년 1월에는 영어교사 심화연수(학생 교육 연수원 합숙 연수)를 받고 있는 초등교사들을 직접 방문하여 단체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질의 및 응답 시간을 가졌다. 1인당 설문지 완성에 걸린 시간은 평균 15분에서 20분 사이였다.

마지막으로 결과 분석 단계(2009. 3~2009. 5)에서는 자료의 통계 분석을 위해 SPSS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적 유의미성 여부를 분석하고 초등학교 교사들의 외래어 선정 기준에 대한 인식 정도 및 교육과정 외래어 목록에 관한 이해 정도를 분석하였다.

3.4 자료 분석

연구의 통계 분석은 SPSS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상관분석의 경

우 $p < .05$ 의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미성 여부를 조사하였다. 연구 과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과제 (1)인 초등학교 교사들이 가르쳐야 할 어휘 목록과 외래어를 구분하고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외래어와 그 외의 외래어에 관해 초등학교 교사들의 판단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기술통계를 통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초등학교 교사들을 변인에 따라 집단을 나누고, 개정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 관한 이해 정도와 교사 집단의 변인에 따른 차이를 t-검정과 상관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교사들이 교육과정의 외래어에 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관해서도 살펴본 뒤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차이의 원인을 찾아보았다. 이를 위해 교사 집단과 설문지 부분별 결과를 변수로 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과제 (2)인 개정 교육과정의 외래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개정 7차 외래어 목록의 선정 기준 및 외래어 선정 기준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정도를 살펴보고 빈도 분석을 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의 외래어들이 많은 연구자들(김영숙, Brown, Richards & Rodgers 등)이 언급했던 어휘 선정 기준을 잘 따르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본 뒤 설문지의 부분 6의 결과와 어휘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 개정 7차 외래어 목록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연구과제 (3)인 외래어 선정 기준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사들이 생각하는 외래어 선정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외래어 선정 기준 중 어느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살펴보았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4.1 가르쳐야 할 어휘 목록과 외래어의 구분 여부

연구과제 (1)인 초등학교 교사들이 가르쳐야 할 어휘 목록과 외래어를 구분하고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외래어에 관해 초등학교 교사들의 판단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통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빈도 분석을 통해 연구과제 (1)인 초등학교 교사들이 가르쳐야 할 어휘 목록과 외래어를 구분 및 인지하고 있는가에 관련된 결과 중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된 외래어에 대한 판단 여부는 다음에 제시된 <표 17>과 같다. 빈도 조사 결과 답이 맞을 경우는 1(최대값), 틀릴 경우는 0(최소값)으로 통계상에 나타났으며,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된 외래어의 정답률은 평균 56%로 절반 정도의 정답률을 보였다. 이 중 높은 정답률을 나타낸 상위 5개의 단어는 *banana*, *television/TV*, *Internet*, *cup*, *tennis*이며, 가장 낮은 정답률을 나타낸 단어는 *program*, *cream*, *sausage*이다.

<표 17>에 따르면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된 외래어의 평균 정답률은 56%로 절반 정도의 정답률을 보였다. 이 중 가장 높은 정답률을 나타낸 단어는 *banana*로 78%의 정답률을 나타냈는데 이는 *banana*가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도 속하면서 동시에 개정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도 포함되어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평균인 56%보다 높은 정답률을 나타낸 *cup*(68%), *radio*(62%), *card*(59%)도 마찬가지로 7차 교육과정 및 개정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 동시에 포함되어있는 단어이다.

<표 17>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된 외래어에 대한 판단

외래어	평균	표준편차
banana	0.78	.415
television/TV	0.73	.447
Internet	0.72	.546
cup	0.68	.468
tennis	0.65	.479
sandwich	0.64	.482
radio	0.62	.488
hotel	0.62	.486
guitar	0.60	.492
card	0.59	.494
film	0.55	.500
quiz	0.52	.502
plastic	0.52	.502
lemon	0.52	.501
spaghetti	0.47	.501
rocket	0.45	.500
marathon	0.44	.498
program	0.37	.486
cream	0.35	.479
sausage	0.34	.474

전체 20개

최소값 : 0, 최대값 : 1, 평균 : 0.56, 표준편차 : 0.490 신뢰도 계수(Alpha) : 0.497

가장 낮은 정답률(34%)을 보인 단어는 *sausage*이며 *cream*(35%), *program*(37%)도 매우 낮은 정답률을 나타냈다. 위의 단어들은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개정 7차 교육과정에 새로 추가된 외래어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평균(56%)보다 낮은 정답률을 보인 단어인 *quiz*, *plastic*, *lemon*(각각 52%), *spaghetti*(47%), *rocket*(45%), *marathon*(44%)도 마찬가지로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개정 7차 교육과정에 새로 추가된 외래어이다. 이를 통해서

교사들이 아직 개정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에 관한 연수 및 교사 교육도 부족한 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설문조사 후에 가졌던 질의·응답 시간에서 개정 7차 교육과정 및 외래어 목록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교사들도 있었으며,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육과정의 어휘 목록 및 외래어 목록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여 그에 관한 질문이 많았던 사실 또한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다음에 제시된 <표 18>는 위에 제시된 <표 17>과 마찬가지로 연구과제 (1)인 초등학교 교사들이 가르쳐야 할 어휘 목록과 외래어를 구분 및 인지하고 있는가에 관련된 결과 중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외래어에 대한 판단 여부이다.

<표 18>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외래어에 대한 판단

외래어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mark	0	1	.84	.365
center	0	1	.75	.435
mask	0	1	.75	.435
software	0	1	.67	.471
model	0	1	.66	.474
soup	0	1	.63	.486
album	0	1	.60	.492
shower	0	1	.56	.498
mouse	0	1	.55	.500
monitor	0	1	.55	.499
ham	0	1	.54	.500
sweater	0	1	.53	.501
blouse	0	1	.52	.502
musical	0	1	.49	.502
supermarket	0	1	.49	.502
dollar	0	1	.47	.501
printer	0	1	.44	.498
ski	0	1	.33	.471
ice cream	0	1	.29	.455
piano	0	1	.23	.425

전체 20개

최소값 : 0, 최대값 : 1, 평균 : 0.54, 표준편차 : 0.480 신뢰도 계수(Alpha) : 0.497

빈도 조사 결과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외래어에 대한 정답률은 평균 54%로 앞에 제시된 결과와 비슷하게 절반 정도의 정답률을 보였다. 이 중 높은 정답률을 나타낸 상위 5개의 단어는 *mark*, *center*, *mask*, *software*, *model*이며, 가장 낮은 정답률을 나타낸 단어는 *ski*, *ice cream*, *piano*이다.

위의 <표 18>에 따르면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외래어의 정답률은 평균 54%로 절반 정도의 정답률을 보인다. 이 중 가장 높은 정답률을 나타낸 단어는 *mark*로 84%의 정답률을 나타냈는데 이는 *mark*가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 및 개정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도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mark*는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 없는 대신 초등학교의 모든 교과서에 5회 이상 등장한 단어이므로 설문지에 포함되었다[*mark*: 2학년 슬기로운 생활(2회), 3학년 생활의 길잡이(1회), 4학년 사회(8회), 5학년 사회(1회), 5학년 사회과 탐구(6회), 6학년 도덕(1회), 6학년 실과(1회), BNC frequency: 6139]. 따라서 *mark*는 교과서에는 자주 등장하나 영어과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교사가 많다고 할 수 있다. 평균인 54%보다 높은 정답률을 나타낸 *mask*(75%), *software*(67%), *model*(66%), *shower*(56%), *mouse*(55%)도 마찬가지로 7차 교육과정 및 개정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 모두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단어이나 초등학교의 모든 교과서에 5회 이상 등장한 단어로서 설문지에 포함된 단어이다.

가장 낮은 정답률(23%)을 보인 단어는 *piano*이며 *ice-cream*(29%)도 매우 낮은 정답률을 나타냈다. 위의 단어들은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던 단어들이었으나 개정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는 제외된 단어라는 특징을 지닌다. *dollar*(47%), *supermarket*(49%)도 마찬가지로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현재 교사들은 개정 7차와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 대해 혼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 전담 경력의 유무에 따라 개정 7차 외래어 목록 판단의 정답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영어 전담 경력이 있는 교사와 없는 교사로 나눈 뒤 t-검정을 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아래에 제시된 <표 19>과 <표 20>과 같다. 교사들의 영어 전담 경력 여부와 개정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 포함된 외래어의 판단 정도(포함 판단 부분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한 결과는 다음의 <표 19>와 같다.

<표 19> 전담여부와 포함 판단 부분 점수의 t-검정

	전담 여부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 오차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	자유도	유의 확률	
포함 판단 부분 점수	전담	79	10.8608	4.35223	.48966	-.871	126	.385	-.7515
	비전담	49	11.6122	5.32219	.76031				

t-검정결과 영어 전담 유무에 따른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 포함된 외래어의 판단 정도는 차이가 없으므로($t = -.871$; $r = .385$)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음의 <표 20>는 교사들의 영어 전담 유무에 따른 개정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외래어의 판단 정도(미포함 판단 부분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20> 전담여부와 미포함 판단 부분 점수의 t-검정

전담 여부	N	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 오차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t	자유도	유의확률	평균차
미포함 판단 부분 점수	전담 79 비전담 49	10.8354 11.0000	3.94329 4.57803	.44365 .65400	-0.216	126	.830	-0.1646

위의 <표 20>에 따르면 t-검정 결과 영어 전담 유무에 따른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외래어의 판단 정도는 차이가 없으므로 ($t = -.216; r = .830$)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영어 전담 유무와 개정 7차 외래어 목록에 대한 판단 정도는 관계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외래어가 교육 과정에 포함된 것이든 포함되지 않은 것이든 상관없이 이에 대한 교사들의 판단력이 흐린 편이며, 또한 교육과정 포함 여부의 판단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에 별다른 기준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영어 전담의 유무 외에도 교사 집단의 변인과 외래어 목록에 대한 판단 정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에 제시된 <표 21>은 교사 집단의 변인에 해당되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교육 경력, 영어 실력 정도, 영어 전담 경력의 정도와 교사들의 개정 7차 외래어 목록에 대한 판단 정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이다.

<표 21> 교육경력, 영어실력, 영어전담경력과 포함, 미포함 판단 부분 점수의 상관관계

		교육경력	영어실력	영어 전담 경력
포함 판단 부분 점수	상관계수	-0.019	0.131	-0.173
	유의확률 (양쪽)	0.314	0.141	0.051
	N	128	128	128
미포함 판단 부분 점수	상관계수	-0.038	-0.069	0.007
	유의확률 (양쪽)	0.647	0.437	0.939
	N	128	128	128
위의 두 부분 점수의 총점	상관계수	-0.138	0.078	-0.187*
	유의확률 (양쪽)	0.121	0.379	0.035
	N	128	128	128

*. 상관계수는 0.05수준(양쪽)에서 유의함.

상관관계 분석 결과 '영어 전담 경력'과 '포함 및 미포함 판단 부분 점수의 총점'과는 유의확률 0.035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영어 전담 경력이 높을수록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 대한 판단 능력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낮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과정 자체의 외래어 목록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또는 외래어 목록에 대한 교사들의 판단력에 혼란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모집단의 수가 많아 앞서 언급한 두 변수는 일부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상관계수는 매우 낮으므로($r=-0.187$) 그 관계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나머지 교사 집단의 변인인 교육경력, 영어실력과 개정 7차 외래어 목록에 대한 판단 정도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따라서 '영어 전담 유무' 변인과 관련된 결과와 마찬가지로 외래어가 교육과정에 포함된 것이든 포함되지 않은 것이든 상관없이 이에 대한 교사들의 판단력이 흐린 편이며, 역시 교육과정 포함 여부의 판단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에 별다른 기준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4.2 외래어 선정 기준과 개정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본 조사에서는 연구과제 (2)인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정도에 관련된 설문지 부분 2에서 부분 5까지의 결과를 통해 외래어 선정 기준(학습 부담 정도, 발음의 유사성, 지도의 수월성, 일상생활 유용도)과 개정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정도를 살펴본다. 또한 설문지의 부분 6의 결과와 외래어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 개정 7차 외래어 목록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교사들이 생각할 때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된 외래어에 대해 학생들이 쉽다고 느끼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22>과 같다.

<표 22>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된 외래어에 대해 학생들이 쉽다고 느끼는 정도에 대한 인식

외래어	평균	표준편차
banana	4.56	.637
cup	4.50	.732
hotel	4.14	.839
quiz	3.96	.959
tennis	3.91	.917
television/TV	3.84	1.215
film	3.53	1.011
sandwich	3.45	1.241
plastic	3.39	1.110
marathon	3.09	1.251

전체 10개

최소값 : 1, 최대값 : 5, 평균 : 3.84, 표준편차 : 0.99, 신뢰도 계수(Alpha) : 0.9343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된 외래어 중에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가장 적고 배우기가 쉽다고 생각되는 *banana*(평균4.56)이며 *cup*(평균4.50)이 그

뒤를 이었다. *banana*와 *cup*은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도 속하면서 동시에 개정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도 포함되어있는 단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를 통해 단어의 뜻 파악, 철자 쓰기, 읽기, 듣기, 함께 쓰이는 다른 표현 등을 고려하였을 때 교사들은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도 속하면서 동시에 개정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도 포함되어있는 단어일 경우 학생들이 배우기 쉽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단어인 *hotel*, *quiz*, *tennis*, *television/TV*, *film*, *sandwich*, *plastic*, *marathon*은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는 없었으나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단어들이다. 이러한 단어일 경우 7차 및 개정 교육과정에 동시에 제시된 외래어보다는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많고 배우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여기는 교사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marathon*은 철자 쓰기도 어렵고 읽기도 어려워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가장 크다고 답한 교사들이 많아 개정 교육과정의 외래어 선정에 의문을 제기한 교사들도 있었다.

교사들이 생각할 때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외래어에 대해 학생들이 쉽다고 느끼는 정도의 분석 결과는 다음 <표 23>과 같다.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외래어 중에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가장 적으며 배우기가 쉽다고 생각되는 *piano*(평균4.48)이며 *ham*(평균 4.45), *ice cream*(평균 4.14)이 그 뒤를 이었다. *piano*, *ice cream*은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는 속하였으나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외래어 목록에서 삭제된 단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ham*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적은 없으나 *hamburger*가 7차 및 개정 교육과정에 동시에 제시되 있으므로 그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mouse*, *shower*, *printer*, *musical*은 7차 교육과정 및 개정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 모두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단어이나 초등학교의 모든 교과서에 5회 이상 등장한 단어로서 설문지에 포함된

<표 23>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외래어에 대해 학생들이 쉽다고 느끼는 정도에 대한 인식

외래어	평균	표준편차
piano	4.48	.664
ham	4.45	.697
ice cream	4.14	.928
mouse	3.92	.910
shower	3.75	.972
printer	3.66	1.046
soup	3.55	.979
sweater	3.27	1.134
blouse	3.24	.994
musical	3.24	1.018

전체 10개

최소값 : 1, 최대값 : 5, 평균 : 3.77, 표준편차 : 0.93, 신뢰도 계수(Alpha) : 0.9343

단어이다. [*mouse*: 읽기(2회), 수학(1회), 실과(7회), BNC frequency: 2844, *shower*: 생활의 길잡이(4회), 사회과 탐구(1회), 실험관찰(1회), BNC frequency: 1878, *printer*: 실과(5회), BNC frequency: 2504, *musical*: 음악(3회), 영어(3회), BNC frequency: 2866].

평균 점수가 하위인 *soup*, *sweater*, *blouse*는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는 속하였으나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외래어 목록에서 삭제된 단어이다. 똑같이 개정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서는 삭제되었으나 학습 부담이 적다고 생각되는 *piano*, *ham*, *ice cream*과는 차이를 보인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soup*는 ‘고기나 야채 따위를 삶아서 낸 즙에 소금, 후추 따위로 맛을 더한 서양 요리’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sweater*는 ‘털실로 두툼하게 짠 상의’를 말하며, *blouse*는 ‘여자나 아이들이 입는 셔츠 모양의 낙낙한 윗옷’을 말한다. 이런 외래어들은 우리말로 대체되는 말이 없으므로 외래어를 그대로 활용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결과에 따른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soup*, *sweater*, *blouse*는 학생들이 배우기에는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단어이거나 함께 쓰이는 단어가 *piano, ham, ice cream* 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학습 부담이 크고 학생들이 배우기가 어렵다고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soup, sweater, blouse*라는 외래어 보다는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는 한 번도 제시된 적은 없으나 *mouse, shower, printer*가 학생들이 배우기에 학습 부담이 더 적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은 개정 교육과정에 새로 추가된 *plastic, marathon* 보다는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piano, ham, ice cream*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 차원에서 더 적절한 외래어라고 생각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설문지의 부분 3은 외래어 선정 기준 중의 하나인 외래어 발음과 영어 발음상의 유사성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 조사이다.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있는 외래어에 대한 발음의 유사성 정도는 아래의 <표 24>과 같으며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외래어에 대한 발음의 유사성 정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표 25>와 같다.

<표 24>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있는 외래어에 대한 발음의 유사성 정도에 대한 인식

외래어	평균	표준편차
cup	4.39	.844
tennis	4.05	.950
hotel	3.93	1.044
quiz	3.69	1.063
television/TV	3.64	1.078
plastic	3.48	.956
sandwich	3.42	1.113
banana	3.30	1.301
film	2.70	1.282
marathon	2.55	1.128

전체 10개

최소값 : 1, 최대값 : 5, 평균 : 3.52, 표준편차 : 1.08, 신뢰도 계수(Alpha) : 0.9363

<표 25>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외래어에 대한
발음의 유사성 정도에 대한 인식

외래어	평균	표준편차
ham	4.26	.890
ice cream	3.93	1.029
mouse	3.89	.990
printer	3.83	.973
shower	3.73	.953
blouse	3.58	1.001
musical	3.57	.978
piano	3.48	1.094
sweater	3.21	.977
soup	3.18	1.075

전체 10개

최소값 : 1, 최대값 : 5, 평균 : 3.67, 표준편차 : 1.00, 신뢰도 계수(Alpha) : 0.9363

두 결과의 평균값은 각각 3.52, 3.67로 큰 차이가 없다. 빈도 조사 결과 주어진 외래어와 원래 영어 발음과의 유사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1(최소값), 유사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5(최대값)로 통계상에 나타내도록 하였으며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0.9363이다. <표 24>에 따르면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된 외래어 중에서 외래어와 원래 영어 발음과의 유사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단어는 *cup*(평균 4.39)이다. *cup*은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도 속하면서 동시에 개정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도 포함되어있는 단어이다. *marathon*(평균 2.55)은 발음의 유사성이 가장 낮은 단어이며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외래어이다. *marathon*은 설문지의 부분 2의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크면서 동시에 발음의 유사성도 낮은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marathon*이라는 외래어를 영어 시간에 채택하여 쓰는 경우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발음 지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25>에 따르면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외래어 중

에서 외래어와 원래 영어 발음과의 유사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단어는 *ham*(평균 4.26)이며, *ice cream*(평균 3.93)이 그 뒤를 이었다. *ham*은 교육 과정에 제시된 적은 없으나 *hamburger*가 7차 및 개정 교육과정에 동시에 제시되 있으므로 그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ice cream*은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 속하였으나 개정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는 삭제된 단어이다. *sweater*와 *soup*은 발음의 유사성이 가장 낮은 단어이다.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 제시된 적이 없는 *mouse*, *printer*, *shower*보다도 발음의 유사성이 낮다. *sweater*와 *soup*은 설문지의 부분 2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학생들이 학습 부담이 비교적 많은 단어이기도 하므로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삭제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에 제시된 <표 26>과 <표 27>은 외래어 선정 기준의 하나인 지도의 수월성 정도와 교육과정의 외래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표 26>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있는 외래어에 대한 지도의 수월성 정도에 대한 인식

외래어	평균	표준편차
cup	4.38	.843
banana	4.31	.867
hotel	4.05	.908
tennis	3.98	.913
television/TV	3.70	1.159
quiz	3.65	1.009
sandwich	3.40	1.118
plastic	3.30	1.098
film	3.25	1.012
marathon	2.85	1.171

전체 10개

최소값 : 1, 최대값 : 5, 평균 : 3.69, 표준편차 : 1.01, 신뢰도 계수(Alpha) : 0.9444

**<표 27>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외래어에 대한
지도의 수월성 정도에 대한 인식**

외래어	평균	표준편차
ham	4.34	.768
piano	4.13	1.007
ice cream	4.03	.955
mouse	3.81	.867
printer	3.67	.915
shower	3.66	.950
soup	3.46	.938
blouse	3.36	.894
musical	3.31	.962
sweater	3.15	1.051

전체 10개

최소값 : 1, 최대값 : 5, 평균 : 3.69, 표준편차 : 0.93, 신뢰도 계수(Alpha) : 0.9444

<표 26>에 나타난 대로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외래어 중에서 가장 지도하기가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는 *cup*(평균 4.38)이며, *banana*(평균 4.31)이 그 뒤를 이었다. 두 단어 모두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도 속하면서 동시에 개정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이다. 나머지 8개의 단어는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새로 추가된 외래어이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를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로 도입된 외래어보다 더 지도하기가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낮은 점수(평균 2.85)를 나타낸 *marathon*은 설문지의 부분 2, 3의 분석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학생들의 학습 부담도 크면서 발음의 유사성도 가장 떨어지며 또한 이런 이유로 인해 교사들이 지도하기 가장 어려운 단어라고 말할 수 있다. *film*(평균 3.25)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교사들이 지도하기 어려운 단어라고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7>에 따르면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외래어 중에서 가장 지도하기가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는 *ham*(평균 4.34)이며, *piano*(평균 4.13), *ice cream*(평균 4.03)이 그 뒤의 순서를 나타내었다.

*ham*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적은 없으나 *hamburger*가 7차 및 개정 교육과정에 동시에 제시되 있으므로 은연중에 교사들이 지도하기에 가장 수월하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piano*와 *ice cream*은 7차 교육과정에는 제시되 있으나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삭제된 외래어나 교사들이 단어들을 지도하기가 수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oup*, *blouse*, *sweater*는 설문지 부분 2의 분석에서처럼 학생들의 부담이 비교적 큰 동시에 발음의 유사성도 낮으므로 지도의 수월성이 떨어진다고 추측된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이 외래어들을 삭제하고 다른 외래어로 대체한 것으로 분석되며 관련 자료를 좀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제시된 <표 28>과, <표 29>는 설문지의 부분 5의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있는 외래어에 대하여 외래어 선정 기준 중의 하나인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유용도 정도를 파악한 결과이다. <표 28>는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있는 외래어에 대한 학생들의 일상생활 유용도를 나타낸 것이며, <표 29>은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외래어에 대한 학생들의 일상생활 유용도를 나타낸 것이다. 빈도 조사 결과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외래어에 대한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유용도 정도를 파악하여 유용도가 낮은 경우에는 1(최소값), 유용도가 높은 경우에는 5(최대값)로 통계상에 나타내도록 하였으며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0.9141이다. 두 결과의 평균값은 각각 4.15, 4.05로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있는 외래어가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유용도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있는 외래어에 대한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유용도 정도에 대한 인식

외래어	평균	표준편차
television/TV	4.75	.561
cup	4.74	.578
banana	4.58	.647
quiz	4.44	.707
sandwich	4.34	.736
plastic	4.16	.976
tennis	3.96	1.030
hotel	3.76	1.085
film	3.42	1.106
marathon	3.33	1.005
전체 10개		

최소값 : 1, 최대값 : 5, 평균 : 4.15, 표준편차 : 0.84, 신뢰도 계수(Alpha) : 0.9141

<표 29>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외래어에 대한 학생
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유용도 정도에 대한 인식

외래어	평균	표준편차
ice cream	4.73	.598
piano	4.56	.718
ham	4.51	.710
mouse	4.37	.850
printer	4.28	.803
shower	4.27	.808
blouse	3.55	1.114
sweater	3.51	1.004
soup	3.48	.956
musical	3.23	1.147
전체 10개		

최소값 : 1, 최대값 : 5, 평균 : 4.05, 표준편차 : 0.87, 신뢰도 계수(Alpha) : 0.9141

<표 28>의 결과에 따르면 *television/TV*가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유용도가 높다(평균 4.75)고 나타났으며 *cup*(평균 4.74)과 *banana*(평균 4.58)도 유용도가 매우 높다고 나타났다. *television/TV*는 개정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도입된 외래어인데 설문지 부분 2, 3, 4의 분석(<표 22>, <표 24>, <표 26> 참고) 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새로 도입한 다른 외래어보다 상대적으로 적으며 원래 영어 발음과도 비슷하고 지도하기도 비교적 수월하다. 또한 *television/TV*는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유용도가 매우 높으므로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새로 선정된 사실에 대해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cup*과 *banana*는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도 속하면서 동시에 개정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이다. *cup*은 설문조사의 부분 2, 3, 4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적으며, 지도하기가 수월하고, 원래의 영어 발음과의 유사성도 높은 편이며,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쓰이므로 외래어 목록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banana*는 원래의 영어 발음과의 유사성은 낮으나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적고 지도하기가 수월하며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단어이므로 외래어 선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다.

한편 *film*(평균: 3.42)과 *marathon*(평균: 3.33)은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유용도가 낮다고 분석된다. 설문지의 부분 4를 분석한 <표 26>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도의 수월성도 떨어지며 <표 24>의 결과를 보면 발음의 유사성도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marathon*은 학생들의 학습부담도 다른 외래어에 비해 매우 큰 것(<표 22> 참고) 으로 나타난 단어이다. 따라서 *film*과 *marathon*은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새로 도입된 단어이나 그 선정의 타당성에 조심스럽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표 29>의 결과인 개정 7차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외래어에 대한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유용도에 대하여 분석해보면,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유용도가 높은 단어는 *ice cream*(평균 4.73)이며 그 뒤로는 *piano*(평균 4.56)와 *ham*(평균 4.51)이다. *ice cream*과 *piano* 는 7차 교육과

정에는 제시되 있으나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삭제된 외래어나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유용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에 제시되었던 <표 23>과 <표 27>에서 알 수 있듯이 *ice cream*과 *piano*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도 매우 낮으며 지도하기도 매우 수월한 단어이다. 따라서 이 외래어들은 새로운 어휘로 간주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영어 학습 활동 및 표현을 풍부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ham* 역시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유용도가 높은 단어로서 교육과정에 제시된 적은 없으나 *hamburger*가 7차 및 개정 교육과정에 동시에 제시되 있으므로 외래어목록의 연장선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blouse, sweater, soup*은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 제시된 적이 없는 *mouse, printer, shower*보다도 유용도가 낮다는 결과를 알 수 있다. 앞서 제시된 <표 23>, <표 25>, <표 27>에서도 알 수 있듯이 *blouse, sweater, soup*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도 있고, 지도의 수월성도 낮으며, 발음의 유사성도 낮다. 그에 더해 학생들의 일상생활의 유용도도 떨어지므로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이 단어들이 외래어 목록에서 삭제된 사실에 타당성을 부여한다.

다음에 제시된 <표 30>은 설문지의 부분 6에 관한 것으로 새롭게 포함시켜야 할 외래어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 한 번도 제시된 적이 없는 외래어와 7차 교육과정에 제시되었으나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외래어 목록에서 삭제된 외래어 중에서 BNC 상의 사용빈도가 높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5회 이상 등장한 단어 20개를 추출한 것이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5회 이상 등장한 외래어는 매우 많으나 그 중 한글로 바뀌서 대체 사용이 가능한 외래어는 제외하고, BNC에 따라 사용 빈도가 높은 순서로 20개의 단어를 채택하였다. 이 20개의 단어 중에서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 포함시키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단어를 골라 표시하도록 하였다. 해당하는 단어가 선택이 되지 않았으면 0(최소

값), 선택이 되었으면 1(최대값)로 통계상에 나타내었으며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0.8343이다.

<표 30> 포함시키면 좋을 외래어

외래어	평균	표준편차
camera	.86	.349
Olympic	.61	.490
ribbon	.56	.498
gas	.49	.502
building	.49	.502
pineapple	.48	.501
curtain	.46	.500
doughnut	.42	.496
centimeter	.41	.493
steak	.41	.494
announcer	.40	.492
pin	.36	.482
zipper	.34	.474
medal	.34	.474
lens	.33	.471
bench	.30	.459
wheelchair	.27	.443
ballet	.27	.447
hiking	.26	.439
helmet	.23	.425
전체 20개		

최소값 : 0, 최대값 : 1, 평균 : 0.41, 표준편차 : 0.47, 신뢰도 계수(Alpha) : 0.8343

위에 제시된 외래어 중에서 *ribbon*(평균 0.56), *pin*(평균 0.36), *bench*(평균 0.30), *hiking*(평균 0.26)은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 있었으나 교육과정 개정 시 삭제된 외래어이다. 이들 중 *ribbon*은 반 이상의 교사들이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단어이다. 그 외의 외래어 중에서는 *camera*(평균 0.86)를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

하는 교사가 제일 많았다. *camera*는 초등학교 교과서 중 읽기 2회, 쓰기 2회, 생활의 길잡이 2회, 사회 6회, 사회과 탐구 2회로 총 14회(디지털카메라, 카메라맨 포함) 등장하며 BNC의 빈도는 3775이다. 사회적 문화적 현상으로 인해 *camera*는 학생들의 생활에도 많이 쓰이며, 구체어이다. 또한 그림이나 사진, 실물 등으로 쉽게 학습될 수 있는 단어이므로 Richard(2001)가 제시한 어휘 선정 기준 중 교수학습의 유용성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주어진 50개의 외래어 외에 40날말 내외의 외래어를 추가로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지침에서 추가 가능한 외래어 40개 중에 포함시켜서 사용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ribbon*도 앞서 언급했듯이 반 이상의 교사가 어휘목록에 포함시키기를 희망하는 단어이다. *ribbon*은 초등학교 교과서 중 수학익힘 16회, 실과 2회, 체육 23회로 총 41회 등장하는 외래어이며 BNC 상의 빈도는 1005이다. *ribbon* 역시 구체어이다. 또한 그림이나 사진, 실물 등으로 쉽게 학습될 수 있는 단어이므로 Richard(2001)가 제시한 어휘 선정 기준 중 교수학습의 유용성에도 부합하므로 비록 개정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는 삭제된 단어이나 추가 선택이 가능한 외래어에 포함시켜서 학습자의 어휘 학습 부담은 줄이면서도 영어 학습 활동 및 표현을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Olympic*은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는 제시된 바 없으나 초등학교 교과서에 분포 범위가 넓고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이다. 말하기·듣기·쓰기 1회, 읽기 8회, 도덕 9회, 생활의 길잡이 7회, 사회 9회, 사회과 탐구 6회, 수학 1회, 체육 5회로 교과서에 총 46회 등장한다. 학생들이 생활에서 쓰는 일상적인 단어는 아니나 사회 문화적 현상 및 시사적 주제에 맞게 고학년에게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표 31>는 교사 변인 집단과 외래어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에 대

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표 31> 교사 집단과 외래어 인식의 상관관계 분석

		교육 경력	영어전 담경력	영어 실력	영어 연수
교육과정에 포함된 외래어의 쉬운 정도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N	.153 .084 128	.017 .851 128	.207* .019 128	.232** .008 128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외래어의 쉬운 정도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N	.239** .007 128	.079 .372 128	.150 .092 128	.285** .001 128
교육과정에 포함된 외래어와 한국 발음의 유사성 정도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N	.039 .666 128	-.094 .291 128	.016 .861 128	-.110 .216 128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외래어와 한국 발음의 유사성 정도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N	.075 .401 128	.045 .618 128	-.041 .646 128	.057 .523 128
교육과정에 포함된 외래어의 지도의 수월성 정도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N	.274** .002 128	.110 .216 128	.055 .539 128	.170 .056 128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외래어의 지도의 수월성 정도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N	.289** .001 128	.178* .044 128	.067 .454 128	.224* .011 128
교육과정에 포함된 외래어의 학생 생활 활용 빈도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N	-.009 .916 128	-.039 .659 128	.071 .424 128	-.058 .513 128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외래어의 학생 생활 활용 빈도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N	.062 .489 128	-.006 .949 128	.063 .481 128	.021 .812 128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이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첫째, 연관관계가 높진 않지만($r=.239$) 교육 경력이 높은 교사일수록 개정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외래어에 대해서 학생들이 배우기 쉽고 학습 부담을 덜 느낀다고 인식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연관관계가 높진 않으나 개정 교육 과정에 포함된 외래어($r=.274$)든 포함되지 않은 외래어($r=.289$)든 관계없이 주어진 외래어의 지도상 수월성이 높다고 답하였다.

둘째, 연관관계는 약한 편이나($r=.178$) 영어 전담 경력이 많은 교사일수록 다른 교사들에 비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외래어도 학생들에게 지도하기가 비교적 수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교사들의 영어 실력이 높을수록 또는 자신의 영어 실력이 높다고 생각하는 교사일수록 그렇지 않은 교사들에 비해 개정 교육과정에 포함된 외래어를 학생들이 배우기 쉽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영어 연수를 많이 받은 교사일수록 개정 교육과정에 포함된 외래어든 포함되지 않은 외래어든 관계없이 주어진 외래어를 학생들이 배우기 쉽다고 답하였다. 또한 다른 교사들에 비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외래어도 학생들에게 지도하기 비교적 수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다양한 영어 연수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나온 결과라고 여겨진다.

4.3 외래어 선정 기준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 정도

본 조사에서는 연구과제 (3)인 외래어 선정 기준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정도를 알기 위하여 설문지 부분 7의 결과를 통해 교육과정의 외래어 선정 기준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정도를 살펴보았다. 설문지의 부분 7의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32>과 같다. 빈도 조사 결과 교육과정의 외래어 선정 기준에 대해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1(최소값),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5(최대값)로 통계상에 나타내도록 하였으며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0.7956이다. 평균값은 3.90이다.

<표 32> 외래어 선정 기준

선정 기준	평균	표준편차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유용성 정도(availability)	4.35	.790
우리나라 초등학생 경험 범위 내에서의 활용 정도 (frequency)	4.34	.844
학습가능성(learnability)	4.02	.846
다양한 영역에서 쓰이는 정도(range)	3.80	.879
영어권에서 자주 사용되는 정도	3.75	.980
적용범위(coverage)	3.71	.805
한국 발음과 영어 발음의 유사성	3.65	.884
다른 단어를 정의하는데 쓰이는 정도 (defining power)	3.61	.835
전체 8개		

최소값 : 1, 최대값 : 5, 평균 : 3.90, 표준편차 : 0.86, 신뢰도 계수(Alpha) : 0.7956

<표 32>의 분석 결과 외래어 선정 기준 중 교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도(availability)로 나타났다.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외래어는 그만큼 학습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등학생의 영어 학습을 위한 외래어이므로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경험 범위 내의 활용정도(frequency)와 학습가능성(learnability)도 외래어 선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 33>은 교사 집단 변인에 따른 외래어 선정 기준의 인식 관계를 알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이다.

<표 33> 교사 집단 변인별 상관관계

		영어전담 경력	영어 접수	영어 연수
한국 발음과 영어 발음의 유사성	상관계수	-.223*	.043	-.189*
	유의확률 (양쪽)	.011	.631	.033
	N	128	128	128
우리나라 초등학생 경험 범위 내에서의 활용 정도	상관계수	-.046	-.104	-.092
	유의확률 (양쪽)	.607	.242	.301
	N	128	128	128
영어권에서 자주 사용되는 정도	상관계수	-.008	-.136	-.088
	유의확률 (양쪽)	.931	.126	.325
	N	128	128	128
적용범위	상관계수	.075	-.074	.081
	유의확률 (양쪽)	.403	.405	.361
	N	128	128	128
학습가능성	상관계수	.008	-.018	-.028
	유의확률 (양쪽)	.925	.841	.758
	N	128	128	128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도	상관계수	-.013	-.082	.037
	유의확률 (양쪽)	.880	.355	.680
	N	128	128	128
다른 단어를 정의하는데 쓰이는 정도	상관계수	.170	-.018	.140
	유의확률 (양쪽)	.056	.839	.115
	N	128	128	128
다양한 영역에서 쓰이는 정도	상관계수	.018	-.045	-.084
	유의확률 (양쪽)	.840	.617	.348
	N	128	128	128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앞서 언급했던 <표 32>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교사는 발음의 유사성은 위에서 언급한 어휘 선정의 다른 기준들(어휘 선정 기준의 전체 평균: 3.90) 보다는 중요도가 낮다(평균 3.65)고 답하였는데, 위의 <표

33>의 상관관계 분석에 따르면 영어 전담 경력이 높을수록, 영어 연수를 많이 받은 교사일수록 외래어 선정 기준 중에서 외래어의 한국 발음과 영어 발음의 유사성을 다른 기준에 비해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어 전담 경력 및 영어 연수의 결과로 어휘 선정의 기준 중 발음의 유사성에 대한 인식 외에도 다른 어휘 선정 기준에 대한 인식이 그렇지 않은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말하며, 영어 전담 경력 및 영어 연수를 많이 받은 교사들은 단순하게 외래어 발음과 영어 발음의 유사성이 높은 외래어 보다는 초등학생의 경험 범위 내에서의 활용성과 적용 범위 등 여러 어휘 선정 기준에 대한 배경지식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학습을 보다 풍부하게 하면서도 학습 부담은 적다고 여겨지는 영어과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을 분석하고,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개정 7차 영어과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및 외래어 목록의 적절성을 고찰해 보았다.

본 연구자는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외래어 목록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초등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열정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초등학교 교사들의 외래어에 관한 인식 및 그 판단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외래어라는 개념 자체가 가지는 모호성의 문제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결과가 반드시 교사의 잘못만으로 보기에선 선부른 면이 있으며 또한 교사들의 외래어 인식 및 판단 기준의 부족에는 교육과정상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지 좀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구체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 포함되는 외래어와 그렇지 않은 외래어를 판단하는 정도로 보았을 때 초등학교 교사들이 가르쳐야 할 어휘 목록과 외래어를 구분하고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외래어 별로 인식 정도의 편차도 심하다. 이는 아직 개정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이에 관한 연수 및 교사 교육도 부

족한 현실 때문이라고 분석되며, 전체적으로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외래어 목록에 자체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함이다.

둘째,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 대해 교사들은 부적절한 외래어와 적절한 외래어가 섞여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 발음의 유사성, 지도의 수월성, 학생들의 일상생활 유용도를 고려한 외래어 선정은 묻는 문항에서 몇 가지 외래어에 편중된 대답이 많았던 결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셋째, 교사들은 외래어 선정 기준에 대해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도와 우리나라 초등학생 경험 범위 내에서의 활용 정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어휘 선정의 기준 중에서 외래어 선정에 적합한 기준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거의 없으면서도 영어 학습을 도울 수 있는 적합한 외래어 선정 기준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

5.2 제언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영어 실력의 바탕이 되는 기본 단위인 어휘의 중요성을 생각하여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단위 시간당 어휘 학습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어휘의 양이 증가하면 그만큼 학생들의 어휘 학습 부담이 커지므로 어휘 학습 부담은 줄이면서도 영어 활동은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외래어의 활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교사 연수를 보다 강화하고, 영어 지도서의 매 단원마다 소개되어 있는 단원 안내 및 어휘 란에 추가해서 사용해도 좋을 적절한 외래어를 선정하여 수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줄이면서도 보다 활발하고 효과적으로 영어 학습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외래어 목록의 도입 취지를 잘 살려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의 적절성을 고찰함으로써 지금까지 그다지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했던 외래어 목록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적절하거나 부적절한 외래어를 외래어 선정기준에 맞게 조사하여 분석하였으므로 앞으로 제작될 영어 교과서 및 지도서의 외래어 선정에 시사를 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고찰한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을 학생들의 수업에 구체적으로 투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교육과정에 제시된 외래어 목록의 실제적인 학습 가능성과 효과를 알아보는 실험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영어과 개정교육과정 연수자료집*.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1996).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IV*. 서울: 교육부.
- 교육부. (1997). *외국어과 교육과정(I)*. 서울: 교육부.
- 교육부. (1998). *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V*. 서울: 교육부.
- 교육인적자원부. (2006).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안 공청회*.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 (2006). *초등학교 교육 과정 해설(V)-외국어*. 서울: 대한 교과서.
- 교육인적자원부. (2007). *제 7차 초등학교 교육 과정*. 서울: 대한 교과서.
- 교육과학기술부. (2008a). *2007년 개정 초등학교 교육 과정*. 서울: 대한 교과서.
- 교육과학기술부. (2008b). *2007년 개정 초등학교 교육 과정 해설(V)*. 서울: 대한 교과서.
- 국립국어연구원. (2002). *외래어 표기 용례집 - 일반 용어*. 서울: 계문사.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go.kr>
- 권명수. (2003).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외래어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충북.
- 김문창. (1985). *국어문자표기론*. 서울: 문학세계사.
- 김미래. (2001).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외래어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충북.
- 김석순. (2003). *초등학생 읽기 자료에 나타난 외래어 연구*. 석사학위논문. 진주교육대학교, 경남.

- 김영숙. (1997). 초등 영어 기본 어휘에 관한 제안. *초등영어교육*, 3, 5-17.
- 김영태. (1993). 초등학교 영어 교육을 위한 외래어 조사. *영어교육*, 45, 145-167.
- 김인석, 정동빈. (1999). 초등영어 교육을 위한 새로운 어휘목록의 제시에 관한 연구. *초등영어교육*, 5(1), 105-126.
- 박영임. (2006). *초등영어 어휘의 친밀도 조사와 활용방안*. 석사학위 논문. 광주교육대학교, 광주.
- 배두분. (1997). *초등학교 영어교육: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문화사.
- 배두분. (1999). *영어교육학*. 서울: 한신문화사.
- 배두분. (2002). *영어교육학 총론*. 서울: 한국문화사.
- 서미옥. (2005). *웹을 활용한 초등학교 영어 어휘 중심의 듣기 지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충북.
- 선형중. (2005). *초등영어교육을 위한 일반교과의 외래어 조사*. 석사학위 논문. 진주교육대학교, 경남.
- 신명신. (1996). 영어 기본 어휘 목록 제안. *영어교육*, 51(4), 151-175.
- 윤희선. (2003). *초등영어단어 인지력 향상을 위한 외래어 활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서울.
- 이영아. (2000). *초등학교 영어 어휘의 효과적인 지도 방안에 관한 실험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충북.
- 이의갑. (2005). *영어과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홍배, 권오량, 김임득, 부경순, 이완기, 최연희, 허경철. (1995).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시안)*. 서강대학교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 이희승. (1982).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 임찬빈. (2006).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서울: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 장경숙, 정규태. (2005). 영어과 교육 과정의 어휘 통제에 관한 문헌 연구. *응용언어학*, 35(2), 197-218.
- 전병만. (2006). *초·중등 영어교육 현황분석*.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정영국. (2002). 제 7차 교육과정의 영어과 어휘 지침 운용 연구. *외국어 교육*, 9(1), 49-68.
- 정희원. (2004). 외래어의 개념과 범위. *새국어생활*, 14(2), 5-22.
- Brewster, J., Ellis, G., & Girard, D. (1992). *The primary English teacher's guide*. London: Penguin Books.
- British National Corpus (<http://corpus.byu.edu/bnc>, <http://www.kilgarriff.co.uk/bnc-readme.html>)
- Brown, H. (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4th ed.). New York: Pearson Education.
- Carter, R., & McCarthy, M. (Eds.). (1988). *Vocabulary and language teaching*. London: Longman.
- Coady, J. (1997). L2 vocabulary acquisition through extensive reading. In J. Coady & T. Huckin (Eds.), *Second language vocabulary acquisition* (pp. 225-23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onley, M. (1974). The role of structural semantics in expanding and activating the vocabulary of the advanced learner: the example of the homophone. *Audio-Visual Language Journal*, 12(2), 81-89.

- Mackey, W. F. (1965). *Language teaching analysis*. London: Longmans Group, Ltd.
- McArthur. (1981). *Longman lexicon of contemporary English*. London: Longman.
- McCarthy, M. (1990). *Vocabula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ichards, J. (2001). *Curriculum development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chards, J., & Rodgers, T. (2001). *Approaches and methods in language teaching*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lkins, D. A. (1972). *Linguistics and language reaching*. London: Edward Arnold.



<부 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본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문지는 부경대학교 초등영어교육 관련 논문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의 어휘목록」의 기초 자료입니다.

각 설문에 따라 본인에게 드는 느낌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답변해주시요. 본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귀하의 응답 내용은 본 연구의 순수한 학술적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응답이 완료되는 데는 약 1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2009년 1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초등영어교육과

지도교수 : 오 준 일

연구자 : 유 미 진

<인적사항>

다음 해당되는 사항에 O해 주세요.

1. 성별: ① 남 ② 여
2. 교육경력 : ① 3년 미만 ② 3-5년 ③ 6-8년 ④ 9-11년
⑤ 12-14년 ⑥ 15-18년 ⑦ 19-29년 ⑧ 30년 이상
3. 영어전담경력 : 영어전담경력을 개월 수까지 계산해서 적어주시요.
(예: 1년 -> 1.0, 3년 8개월-> 3.08, 2년 11개월 -> 2.11)
(.)
4. 대학교 학부 전공(복수응답가능): ① 교육대학교 초등영어교육
② 일반대학교 영어관련학과
③ 교육대학교 기타심화과정
5. 대학원 영어 교육 관련 : ①대학원 초등영어교육관련 재학 또는 졸업
② 일반대학교 영어관련학과 재학 또는 졸업
③ 기타 ()④해당사항없음
6. 영어 관련 공인 시험 점수 :해당되는 곳에 O해 주세요.

<뒷장에 연결>

TOEFL(PBT)	TOEFL(CBT)	TOEFL(IBT)	TOEIC	TEPS
649~677점	280~300점	114~120점	960~990점	935~990점
620~649점 미만	260~280점 미만	105~114점 미만	930~960점 미만	881~935점 미만
595~620점 미만	245~260점 미만	97~105점 미만	885~930점 미만	791~881점 미만
570~595점 미만	230~245점 미만	88~97점 미만	780~885점 미만	702~791점 미만
530~570점 미만	197~230점 미만	71~88점 미만	670~780점 미만	563~702점 미만
480~530점 미만	157~197점 미만	54~71점 미만	530~670점 미만	415~563점 미만

=>만약에 영어 관련 공인 시험 점수가 없다면 본인이 생각할 때 자신의 영어 실력을 표시해 주세요. ① 영어 실력이 매우 높음 ②영어 실력이 높음 ③영어 실력이 중간정도임

④영어 실력이 낮은 편임 ⑤영어 실력이 매우 낮음

8. 영어관련연수정도 : ①30시간미만 ②30-60시간미만 ③ 60-120시간미만 ④120시간 이상

9. 연수를 포함한 해외체류기간 : ①1개월 미만 ②1-6개월 ③6-12개월 ④1년 이상

1.아래의 표는 개정 7차 교육과정 어휘목록지침의 외래어로 선정된 50개의 단어에 속하는 단어와 속하지 않는 단어가 각각 20개씩 섞여있는 것입니다. 개정 7차의 어휘목록지침의 외래어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단어에 O해 보세요.

번호	외래어 및 한글독음	번호	외래어 및 한글독음	번호	외래어 및 한글독음	번호	외래어 및 한글독음
1	banana 바나나	2	card 카드	3	center 센터	4	ice cream 아이스-크림
5	dollar 달러	6	blouse 블라우스	7	plastic 플라스틱	8	program 프로그램
9	cream 크림	10	film 필름	11	piano 피아노	12	album 앨범
13	monitor 모니터	14	ham 햄	15	quiz 퀴즈	16	rocket 로켓
17	guitar 기타	18	hotel 호텔	19	shower 샤워	20	mask 마스크
21	mark 마크	22	sweater 스웨터	23	sandwich 샌드위치	24	sausage 소시지
25	cup 컵	26	radio 라디오	27	mouse 마우스	28	model 모델
29	ski 스키	30	musical 뮤지컬	31	spaghetti 스파게티	32	television/TV 텔레비전
33	lemon 레몬	34	marathon 마라톤	35	software 소프트웨어	36	soup 수프
37	printer 프린터	38	supermarket 슈퍼마켓	39	tennis 테니스	40	Internet 인터넷

□ (2-5번) 다음 제시된 외래어를 보고 해당 항목에 표시해 보세요.

2. 다음 외래어를 학생들이 배우기 쉬운가(뜻 알기, 철자쓰기, 읽기, 듣기, 함께 쓰이는 다른 표현 등을 고려)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O표해 주세요.

번호	외래어	1	2	3	4	5
		매우 부담이 크다	부담이 크다	보통	부담이 적다.	거의 부담이 적다.
1	banana (바나나)					
2	film (필름)					
3	hotel (호텔)					
4	quiz (퀴즈)					
5	marathon (마라톤)					
6	ice cream (아이스-크림)					
7	blouse (블라우스)					
8	piano (피아노)					
9	ham (햄)					
10	shower (샤워)					
11	cup (컵)					
12	plastic (플라스틱)					
13	tennis (테니스)					
14	sandwich (샌드위치)					
15	television/TV (텔레비전)					
16	printer (프린터)					
17	sweater (스웨터)					
18	mouse (마우스)					
19	musical (뮤지컬)					
20	soup (수프)					

3. 다음은 제시된 외래어의 실제 영어 발음과 한국어 발음의 유사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O표해 주세요.

번호	외래어	1	2	3	4	5
		매우 다르다.	조금 다르다.	보통	조금 유사하다.	매우 유사하다.
1	banana (바나나)					
2	film (필름)					
3	hotel (호텔)					
4	quiz (퀴즈)					
5	marathon (마라톤)					
6	ice cream (아이스-크림)					
7	blouse (블라우스)					
8	piano (피아노)					
9	ham (햄)					
10	shower (샤워)					
11	cup (컵)					
12	plastic (플라스틱)					
13	tennis (테니스)					
14	sandwich (샌드위치)					
15	television/TV (텔레비전)					
16	printer (프린터)					
17	sweater (스웨터)					
18	mouse (마우스)					
19	musical (뮤지컬)					
20	soup (수프)					

4. 다음은 제시된 외래어를 교사가 학생에게 지도할 때의 수월성 정도(뜻 알기, 철자쓰기, 읽기, 듣기, 함께 쓰이는 다른 표현 등을 고려)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O표해 주세요.

번호	외래어	1	2	3	4	5
		지도하기 매우 어렵다.	조금 지도하기 어렵다.	보통	지도하기 조금 쉽다..	매우 지도하기 쉽다.
1	banana (바나나)					
2	film (필름)					
3	hotel (호텔)					
4	quiz (퀴즈)					
5	marathon (마라톤)					
6	ice cream (아이스-크림)					
7	blouse (블라우스)					
8	piano (피아노)					
9	ham (햄)					
10	shower (샤워)					
11	cup (컵)					
12	plastic (플라스틱)					
13	tennis (테니스)					
14	sandwich (샌드위치)					
15	television/TV (텔레비전)					
16	printer (프린터)					
17	sweater (스웨터)					
18	mouse (마우스)					
19	musical (뮤지컬)					
20	soup (수프)					

5. 다음은 제시된 외래어를 학생이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자주 쓰이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O표해 주세요.

번호	외래어	1	2	3	4	5
		거의 쓰이지 않는다.	드물게 쓰인다.	보통	많이 쓰인다.	매우 많이 쓰인다.
1	banana (바나나)					
2	film (필름)					
3	hotel (호텔)					
4	quiz (퀴즈)					
5	marathon (마라톤)					
6	ice cream (아이스-크림)					
7	blouse (블라우스)					
8	piano (피아노)					
9	ham (햄)					
10	shower (샤워)					
11	cup (컵)					
12	plastic (플라스틱)					
13	tennis (테니스)					
14	sandwich (샌드위치)					
15	television/TV (텔레비전)					
16	printer (프린터)					
17	sweater (스웨터)					
18	mouse (마우스)					
19	musical (뮤지컬)					
20	soup (수프)					

□ (6번) 다음은 새롭게 포함시켜야 할 외래어에 관한 단어와 그 이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6. 다음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여러 번 등장하나 개정 7차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외래어입니다. 이 중에서 교육과정의 외래어 목록에 포함시키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단어를 모두 선택하여 O해 주세요.

wheelchair (휠체어)	helmet (헬멧)	pin (핀)	ribbon (리본)
centimeter (센티미터)	bench (벤치)	hiking (하이킹)	curtain (커튼)
announcer (아나운서)	lens (렌즈)	ballet (발레)	gas (가스)
pineapple (파인애플)	doughnut (도넛)	zipper (지퍼)	camera (카메라)
Olympic (올림픽)	medal (메달)	steak (스테이크)	building (빌딩)

□ (7번) 다음은 외래어 선정의 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7. 다음 기준들이 초등학교 어휘 목록의 외래어를 선정할 때 어느 정도 중요한지 O표해 주세요.

번호	이유	1	2	3	4	5
		거의 중요하 지 않음	다소 중요하 지 않음	보통	조금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한국인의 발음과 실제 영어 발음과의 유사성					
2	우리 나라에서 초등학생의 경험 범위 내에서 활용 정도(frequency)					
3	영어권에서 자주 사용되는 정도					
4	적용범위(coverage) (국어에서의 상의어,하의어 중 상의어 개념과 유사함)					
5	학습가능성(learnability)					
6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도(availability)					
7	다른 단어를 정의하는데 쓰이는 정도 (defining power)					
8	다양한 영역에서 쓰이는 정도(range)					
위의 순위 목록에는 없으나 다른 이유가 있으면 써 주세요.						

**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